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입해는 확정금리로!
■교육자금,주택자금,결혼자금,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2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제 2차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우리사회를 짊어지고갈 2세를 길러내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처님이 설한 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세가지 학(學)이 있으니 셋이란 무엇인가. 소위 계(戒)학 심(心)학 혜(慧)학이 그것이다.
〈문수불경계경〉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냇물로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여졌기 때문이니, 무시윤회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법집요경〉

대왕이여, 알고서 악행을 짓는 사람과 몰라서 악행을 짓는 사람 가운데 몰라서 악행을 짓는 사람의 화가 더 큽니다. 불에 달군 쇠덩어리를 알고 잡았던 사람과 모르고 잡았던 사람은 어느 쪽이 심하게 데이겠습니까?
〈미린다왕문경〉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종내 깨달을 날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히 정진해 배움을 닦아 자기의 학문을 성취시키는 한편, 중생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 중에서 도리에 맞게 학문을 닦아 실지실견(實知實見)하여, 청정한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한다.
〈불모출생경〉

하잘것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어서는 안된다. 방탕을 익혀 갈애를 증장시켜서는 안된다.
〈법구경〉

중생은 수습(修習)을 즐겨해 스승을 따라 배움을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훌륭한 스승의 본래의 가르침을 수지하여 삼매에 싫증냄이 있어서는 안된다. 근책계를 항상 닦아서 다섯 번뇌의 훈습을 떠나고, 여러 계를 잘 실천하여 깨달음을 힘껏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성불신변경〉

땅을 놓고 볼 때 염부수 숲을 흐르는 강 밑에서 나는 사금은 얼마 안되지만 가시나 모래 조약돌 풀 나무 따위는 많다. 온갖 중생도 마찬가지다. 중생의 모임을 놓고 볼 때, 반이바라밀다를 닦는 사람은 얼마 안되지만 성문 연각의 법문을 닦는 사람은 많다.
〈불모출생경〉

병아리가 쪼고 어머닭이 쪼아 병아리가 눈떠 껍질이 없어짐에, 병아리와 어미닭의 본분을 모두 잊어버리고 기연에 응하되 어긋남이 없이 같을 길에서 함께 노래하여 하나가 된다.
〈벽암록〉

참 교육

관련기사 3면

기독교 위주 교육개혁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은 편파 행정

2차교육 개혁안 '종교특성 무시' 여론 비등

김영삼대통령의 국방부 국군교회 예배 참석을 둘러싸고 정부의 기독교 편향적책에 대한 타종교 국민들의 위화감이 거세게 일고있는 가운데 또다시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기독교 편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가 지난 9일 발표한 제2차 교육개혁안은 문하생제도와 원격교육제도, 특성화 전문대학 설립등 혁신적 개혁안이 제시돼 환영할만한 반면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은 개신교 목사 양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불교학계·교육계의 여론이 비등하다.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관계법 시안 제31조(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의학 신학에 있어서 고루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에 전문대학원을 둘수 있다"고 명시, 기독교 목회자 양성이 그 취지임을 법조문안에서 명백히 드러냈다.

더구나 우리사회와 같은 다종교 상황에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이라는 설립 자체가 각 종교 교단 별로 행해지고있는 성직자 배출 제도 등 특성을 무시한채 기독교식 일변도의 제도를 도입했다는 지적이다.

불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행을 근본으로 전통적인 승가 법계에의해 성직이랄 수 있는 스님이 양성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자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스님의 양성과정에서 선사 박사등 학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개신교계의 일부 난립하고있는 무자격 목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화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유례없는 다종교의 우리 사회에서 과연 정부가 전문대학원제도까지 설치해가며 목회자를 양성해야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성직자 양성과 교육등은 종교교단및 단체의 소관사항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동국대석림회 등 동국대등문화 불교인권위 현대불교연구소등이 10일 성명서를 낸데 이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서윤길학장은 지난 14일 교개위에 건의서를 냈다. 그리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세미나 공청회등을 통해 집약된 교계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관련기사 3면



독도 망언 규탄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불교인권위가 민주주의민족통일연합과 연대해 일본대사관을 방문, 강력항의 했다. 한편, 경불련은 12일 규탄가두시위를 했고,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일본 전자메일을 이용한 항의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편향 시정·재발방지 촉구

월주스님 'YS 국군교회 예배' 관련 담화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4일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1·21 김영삼대통령의 군교회 예배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종교편향정책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예배사태에 대한 불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정부당국자와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근래에 불교에 대한 차별 대우와 정치적 이용으로 불자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현정부 출범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통령의 군교회예배에 대해 불교계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현정부의 종교편향정책으로 초래할 국론의 분열과 종교간의 공존, 공화질서 파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또 "대통령은 특정종교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 만큼 개인의 종교행위로 인해 타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공 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의전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주스님은 불교계의 김대통령 공개사과 요구와 관련해 "종교편향정책에 대한 진정한 시과와 반성은 의례적인 일과성 사과형식이 아닌 편향적 종교정책과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재발되지 않게 하는것이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월주스님은 또한 불자들을 향해 "그동안의 차별적 종교정책과 대통령 군교회예배로 인해 크게 상심했을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다시 한번 인내와 화쟁의 정신을 하자"고 말해 사실상 승·재가단체가 요구하는 김대통령 군교회예배사태에 대한 공개사과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총무원장 담화문은 김대통령 군교회예배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사과 촉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계종의 첫 공식입장으로 향후 교계 반응이 주목된다.

YS 교계인사 13명 초청

김영삼대통령은 21일 월주 해초 운덕 락예 홍파 녹원 설정 종하 태원 송산스님과 서돈각 권익현 김명윤씨 등 교계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김대통령 해외순방에 앞서 마련된 교계인사 초청은 지난달 21일 군교회예배사태로 불편했던 불교계와 화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계종 신도회 4월창립 '가시화'

이달내 헌장·규약초안 마련 법제분과위 제출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 한상범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안에 중앙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구·직능단위 신도조직의 미비로 당초 예정했던 2월내 창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4월 창립을 위해 창립대회 집행기획단 발족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회장영입에 대해서도 "중앙신도회는 과거처럼 특정인사의 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특정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갑자기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자립할 수 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차선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또 전국신도회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신도회는 조계종과 관계없는 임의단체이므로 광가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 헌장·규약기초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조영황변호사를 선임했다. 기초특위는 또 이달말까지 헌장 및 규약의 초안을 마련, 법제분과위에 제출키로 했다. 중앙신도회 헌장·규약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된다.

울산 경영인협 출범

佛敎 중계소 추진키로

울산경영인 불교협의회는 지난 8일 울산 코리아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박태영씨(유진기업 대표)를 추대하는 한편 불교방송 중계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신앙을 기초로 한 봉사와 포교활동에 주력하게 될 울산경영인불교협의회는 초종과 신도들의 모임으로 이 지역 실업인과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5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마음의 전화' 개통

한불청, 3월 1일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 부설 마음의 전화가 오는 3월1일 개통식을 갖고 출범한다.

이웃의 고민을 풀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마음의 전화(02-747-5787~8)는 매일 오전10시~오후6시까지 신앙·가정·청소년문제 등에 대해 상담하게 된다.

"독도망언 이번엔 뿌리뽑자" 15면
국내최대 목탑 진천 보탑사 14면
설날 특집—놀이·볼거리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사 설

'삶' 풍요롭게 하는 불교문학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정부가 올해를 '문학의 해'로 선포하였다. 특별히 문학을 국가정책적 과제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정보통신, 첨단과학, 영상매체의 범람으로 정신문화의 뿌리인 문학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기도 하겠다.

문학이 우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지혜와 창조의 원천을 제공하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두루 알고 있다. 문학이 문화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이 대중적인 기반을 가질 때 국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속에서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다. 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정치적 구호에 충실한 사업과 행사들로 꽉 차 있다. 물론 한국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함을 지나쳐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하고, 준비하는 일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문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대중성을 이끌어 내야 하는가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국문화의 중심부에 서 있는 불교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문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1600년이 넘도록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크고 귀중한 문화유산사상을 담은 불교문학을 재조명하고 발전시키는데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

특히 올해를 '문학의 해'로 선포한 이상 불교문학에 관한 사업과 행사가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불교계와 불교문학의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바침이 정책적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불교계는 불교문학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불교문학이 무엇이며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속에서 불교문학의 위상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충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에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불교문학상'을 제정하여 연말에 시상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한 범불교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틀의 필요함을 강조하고져 한다.

셋째, 불교문학의 연구에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하다. 불교문학의 연구대상인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기록이 불교문학이라는 인식은 불교계와 문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불교문학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문학으로 이미 공인되었다. 독일의 모리스·빈터니츠같은 유명한 불교학자는 불교문학이 세계문학이며 그 중심부에 서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훌륭한 불교문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독교문학에 중심을 내주고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문학의 중심 속에 불교문학이 자리잡고 있다는 서구인들의 주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민족의 정신주의를 회복하고 전통적인 우리문화를 세계 방방곡곡에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불교문학이 가장 강력한 전달수단임을 다시한번 인식하면서 종단의 꾸준한 지원을 바란다.

열 린 마 당

선학원 분종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산하 법인체인 선학원과 갈등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분종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측은 분종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분종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고 '분종만은 안된다' 해결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벽 암 〈조계종 원로〉

분종은 있을수 없는 일

선학원 문제는 시비의 대상이 되는것에서 의아하게 생각해왔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도 하고 논의돼온 것으로 아는데 시비 자체가 옳지 않아 간여치 않아왔다.

그러나 선학원이 조계종과 분종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이문제는 쌍방의 상식과 양심으로 풀어가야한다.

지 홍 〈금강정사 주지〉

종단과 법인 역할 달라

선학원은 조계종의 명칭을 갖고서 종단에서의 의무 이행에 소홀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종단의 보호아래 자체적으로 종단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조계종과 선학원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이는 선학원뿐 아니라 다른 법인체도 마찬가지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선학원의 분종의지를 우려하고 이를 막기위해 법적장치를 마련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만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조계종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코 분종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지만 종단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안은 없을것 같다.

법 운 〈청용사 주지〉

종지봉대 제각각 노력

조계종과 선학원은 조계 종지를 봉대하며 각각의 역할을 해왔다. 행정이 다를뿐이다. 그런데 종단에서는 하나로 뭉치자고 한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있다. 지난해 부터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행자교육에 선학원 소속 행자를 제외하더니 금년에는 강원의 스님들마저 교육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도제양성을 외면하면서까지 요구하는 의도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선학원은 종단에 위법되거나 더더욱 불교를 그릇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 선학원 관계자를 징계하려고 했다니….

사회도 규모가 커지면 추구하는 이념은 같으면서도 다원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선학원도 불교계에서의 역할이 있다. 종단관계자들의 넓은 마음을 기대하면서 선학원이 오늘의 조계종을 재건한 정신적 산실임을 재인식해야 겠다.

목 정 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한국불교 손실 막아야

한국불교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동일뿌리에서 나온 두개의 꽃이다.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불교정화와 조계종의 탄생에 선학원이 담당한 역할은 막대하다. 이처럼 서로 다르지 않은 뿌리를 가지고 갈라진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손실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단일 종단이 되어 한국불교를 이끌어도 부족한 때에 분종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는 단순히 선학원의 분종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분열을 뜻한다.

서로가 감싸는 자비의 포용력이 필요한 때다.



◇조계종 산하 법인체로 분종위기에 처한 선학원 전경.

선학원은 조계종 재건 산실

한일합방이후 일본 조동종의 침투와 악명높은 사찰령 공포로 한국불교는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3.1운동 2년후인 1921년, 당시 김남천 강도봉 송만공 백용성 오성월 김석두스님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은 신도 시주금과 범어사 포교당을 처분한 대금으로 서울 안국동에 '조선불교선학원본부'를 창건했다. 당시 사찰의 명칭을 '寺'나 '庵'대신 선학원으로 붙인것은 사찰령을 시행하는 총독부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오늘의 선학원은 일제의 탄압이 극악했던때 선풍을 진작시키고 민족의 전통인 한국불교를 지켜나가기 위한 선각자들에 의해 탄생했다.

'22년 선학원은 선우공제회를 결성,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직지사 정혜사 망월사등 19개 사찰에 지부를 설치하며 조직을 확대시켰다.

'26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을 설립, '34년에 법인 인가서가 발급되었다. 당시 이사장 송만공 부이사장 방한암스님등 당대의 선지식이 선학원을 이끌었다.

선리참구원은 '31년 '34년 '35년 3차례에 거쳐 전국수좌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불교의 명맥을 이어왔다.

해방이후 '53년 다시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조계종탄생,정화불사등 오늘의 한국불교를 재건하는데 산실이 되었다.

그후 선학원은 조계종이외의 다른 종단 사암도 등록하게 되면서 '78년 정관개정을 통해 '조계종 승려로서 이사를 구성한다' '선원장(분원장)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개정은 조계종과 선학원 간에 갈등의 씨앗으로 지난해 조계종은 법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선학원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봉대 △임원의 1/3 중앙종회에서 추천 △법인해산후 잔여재산은 조계종에 귀속 등의 정관을 삽입할 것을 최후 통첩했던 것이다. 이에대해 선학원은 이사회결의를 통해 '재단법인의 일반적 성격과 재단 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고 종단에 통보해 분종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현재 선학원에는 6백여개의 분원이 있으며 이가운데 4백여개가 조계종 소속사암이다.

1921년 '조선불교 선학원 본부' 창건
일제시대 한국불교 전통 맥이어
1953년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 변경
78년 이사구성등 정관개정 갈등 불씨

현대만평

박구원



자비심도 한계가…

목어

우리 속담에 '맥도 모르고 침 대롱 흔든다'는 말이 있다. 명의(名醫)는 손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의 속 소식까지를 감지한다. 실로 신이(神異)롭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맥을 잘 짚어야만 침도 제대로 놓을 수 있고, 약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만약 맥을 잘못 짚은 상태에서 침을 놓거나 약을 쓰면 치료를 안하니만 못하다.

최근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제2차 교육개혁안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문대학원 신설에 있어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 등장은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불교에서의 성직자란 기독교와 달라 '직'이라는 요소보다 수행적 요소가 강하다. 때문에 '성스럽고 거룩한 직무'라는 국어사전의 우선 해석에 따라 수행승을 성직자로 이름해도 불교 성직자는 학교 교육만으로 양성될 수 없다. 기독교 목회자의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성직자 양성전문대학원 안은 기독교를 의식하고 만들어졌다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인가,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자 각 신문·방송은 '성직자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보도했다. 또 '신학연구 목회주도를 위한 실용적 분야…히브리어 성서언해' 등을 내용으로한 해설기사는 '성직자 대학원' 신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맥'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 개혁안은 자율적으로 실시해온 신학교육만으로는 성직자를 양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성직자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K신문 선교페이지 '… 목사 배출 길 트였다'는 기사는 그 답을 더욱 확실케 했다.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한탄어린 L씨의 말은 불자들이 왜 김대통령 국군교회 예배에 민감했는지, 왜 종교편향근절을 외치는지 대변하고도 남는다.

공직자는 '맥'을 잘 짚어야 한다.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기대치까지 끌어 올리려 했다면 '성직자 대학원' 보다는 '종교전문대학원'이 훨씬 더 교육 폭을 넓힐 수 있을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이렇게 배워야 한다

너는 이제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한다. 한 순간 장난하고 웃는 동안에도 거짓말을 할 수 없거늘 하물며 진정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나훈아야,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한다. 〈숫타니파타〉

협찬 지혜의 등불 봉사신행회 회장 정 영 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불교교양대 '특수전문대' 승격 가능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의 제2차 교육개혁 방안은 실업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연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각 교육과정에서 불교학 및 문화계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교계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발달에 따라 종파별로 양성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시설확보 및 교사양성에 종단을 비롯 각 단체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육개혁방안에서 불교계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새 교육안 불교교육 체제 달라진다



인간문화재등 명·장인 문하생 학력 인정
방송·PC·인터넷등 통신대학 설립 가능

내년부터 범패, 불화등 인간문화재 문하생들에게 학력이 인정되고 이와함께 교계 교양대학들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재편될 수 있다. 또 동국대와 불교TV가 연결된 불교통신대학 설립,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PC통신대학 설립의 길이 열린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2차 개혁안에 따르면 문하생제도를 도입하여 개별교수 학습이 불가피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및 능력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요무형문화재 50호 범패부문 인간문화재인 송암 벽응 일응스님(신촌 봉원사)과 48호 불화 인간문화재 만봉(신촌 봉원사) 석정(부산 선주산방) 스님 등에게 사사받을 경우 정규학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첨단 정보통신매체인 방송, PC통신, 인터넷, 팩시밀리, 전자우편을 통한 원격교육매체 보유기관의 매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식도 도입한다.

이는 현재 교계에서 추진중인 불교TV와 동국대학의 통신대학 설립, 본사에서 추진중인 인터넷을 통한 PC불교대학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불자들의 교리공부를 촉진, 간편하고 저렴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번 교육개혁안에따라 정규대학으로의 재편이 불가능해왔던 교계 교양대학의 경우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재편이 가능케 됐다. 시설환경이 정규대학에 미치지 못해온 다수 교계 교양대학들이 여건조성만 되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하생제도 학력인정 전통문화예술등 특수분야에서의 문하생제도를 통해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고졸 대졸의 학력을 인정토록한다. 학력인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며 이때 필요한 자료는 인간문화재들의 추천서만 첨부하면된다. 문하생제도는 우리 민족전래의 전통 문화예술(범패 불화 도자기 소리 석탑 등)에 있어 인간문화재 명인 장인에게 사사받은 개별적인 교수학습이 불가피한 특수전문분야에서 효과적인 학습및 능력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개방대학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원격수업방식을 활성화하여 출석수업위주의 전통수업방식에서 방송이나 PC 통신망, 인터넷,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첨단교육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원격교육을 활성화 한다. 이는 원격 교육매체 보유기관의 교육능력을 활성화하고 첨단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하는 데 있다.

특성화 전문대학 설치 한개 또는 두개 학과로 구성된 소규모의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가칭 불화전문대학 범패전문대학 전통요리전문대학 등의 형태가 그것. 특성화 전문대학은 교통이 편리하고 운동장없이 인텔리전트 빌딩만으로 전문대학을 설립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설치할 수있도록 허용하고 학과설치, 폐과 및 학생정원운영은 자율화하여 학교운영을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시 론

교육개혁마저 종교편향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장기간의 연구끝에 1995년 5월 31일에 제1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후 7개월후인 금년 2월 9일 제2차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 되었다. 제1차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신교육체제 구상의 배경 목표, 방안, 추진방법, 효과 등 주로 이론적 원칙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었지만 제2차 개혁안에서는 직업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문대학원제 도입, 교육관계법령 정비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열린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개성존중 등의 혁신적 개혁안이 제시되어 있어서 일단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이 개혁안 중에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부분이다.



김 종 서
〈서울대 명예교수 · 교육학〉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수준높은 교양과 전문성을 구비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4년간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3년간 전문성직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독교 신학의 경우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은 신학의 경우 목회학 석사과정과 연계하여 목회학 박사(Docter of Ministry) 과정을 둘 수 있다(종교 및 종파에 따라 별도의 학위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신학대학(교) 및 종합대학교 내의 신학부 또는 신학과의 경우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여기에서 신학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한 대학을 의미한다. 불교의 경우는 불교관련 대학 및 불교학과 등을 의미함).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련 학과의 경우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성직자 전문대학원 제도는 1997학년도부터 도입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고 불자의 한 사람으로 교육학자의 한 사람으로 극히 불쾌한 감정을 지나서 공분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감정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및 종교에 대하여 편파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공통적인 감정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독교계통의 대학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이며, 불교계통의 대학은 소외되고 차별화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불교나 기독교나 어디에 편향됨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목회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 불교계통의 반발에 대한 도피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글씨로 '불교의 경우는…'라고 22자를 삽입했을 뿐이다. 이점은 교육관계법 시안을 보면 명백하다. 고등교육법시안 제31조에는 "법학 의학 신학에 있어서…"라고 되어있다. 한국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신학을 기독교의 원리라고 풀이하고 있다.

교육법 81조에는 학교의 종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가능함을 생각할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의 제도상 기독교계통 대학은 우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육법 제9조에는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한다"로 되어 있다. 물론 교육법 제9조는 사학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입법정신만은 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불교계통의 전문대학원 설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독교계통의 전문대학원과 같은 무게로 추가 발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종교지도자 양성 전문대학원'으로 고쳐야 한다.

아쉬운 범종교적 배려

'성직자'의 통념은 기독교계통의 종교지도자를 의미한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는 '성직자'를 "종교적 직분을 맡은사람. 참고:교역자"로 되어 있고 신기철, 신용철이 펴낸 〈새우리말 큰사전〉에는 '성직자'를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 신부, 목사, 선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에는 '교역자'를 "예수교회에서 쓰는 단어, 교회의 종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목사, 전도사들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전적 의미로 볼때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은 '기독교지도자양성 전문대학원'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범종교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전문대학원의 설치는 해당분야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우선 3개 분야로 한정시켰다고 할지 모르나 건의가 국가시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다 범국민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종교문제에 관해서는 과급성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기현씨 '全信 활성화 대책위' 배경

'총선계기 향후재기 발판' 노림수

내부반발·조계종 외면·비난 여론등 불투명

조기현씨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국신도회 재건에 나섰다. 조씨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4월 17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고, '전신회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씨는 이날 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신상의 사유로 불교계와 신도회에 누를 끼친 점을 생각해서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의장자격이 없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퇴문제를 표결에 붙여 부결시킴으로써 4월 17일까지의 임기보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상무대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도덕적 오점을 면죄받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냐는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

조씨는 상무대사건과 관련 "불교계에 크나큰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실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정치와 경제 종교와의 관계는 무관할 수 없다고 주장, "정치와 가깝다고 해서 어용으로 몰아부친다면 불교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말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전신회 내부에서도 이런 조씨의 행보에 대해 반대의사를 뚜렷히 표현하고 있어 조회장 의도대로 전신회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활성화대책위원으로 선임된 한 대의원은 "전신회는 물론 조회장 개인적으로 전혀 득될 게 없는 쪽으로 일을 벌여나가고 있다"며 "전국신도회를 2년여 동안 침체에 빠뜨린 장본인이 대책위원회으로 참여한다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해 조회장 중심의 전신회 재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또 "전신회는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조계종과 관계없다 해서 전신회를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부정과 단절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조계종 총무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전신회의 법통을 우리 손으로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사실상 '홀로서기'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조계종총무부장 법타스님은 "전신회는 조계종과 관계없다. 조계종의 적법한 전국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조계종 신도법에서도 '종단은 중앙신도회를 전국 신도의 대표기구로 본다'(3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신도회는 과거 서의현 전총무원장과의 유착으로 조계종 개혁 이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조계종총무원은 전국신도회의 대안으로 중앙신도회를 결성을 준비중이다.

그럼에도 조회장이 전신회의 재건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결성을 준비중인 중앙신도회가 최소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친여성향의 단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전국신도회가 조기현씨를 중심으로 조직활성화를 결의하고 중앙신도회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을 제적키로 하는 등 강도높게 조계종총무원과 중앙신도회 준비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중앙신도회 결성이 늦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정부 당국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날 우리는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全體主義)와 구별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입니다. '이것만이 옳다'거나 '이것만이 진리'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서는 대중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의 종교가 중요하다면 남의 종교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불교는 성불을 통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며, 다른 종교는 유일신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세상입니다. 사랑이나 평화, 화합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가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한다면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배척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파와 종교단체가 있지만 스리랑카, 보스니아나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종교간의 극한 대립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해 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불교가 가진 자비와 화쟁의 포용정신은 종교간의 대립을 막고 공존 공영을 도모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종교간의 상호 인정과 존중의 풍토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사에서 종종 나타났던 불교에 대한 차별대우와 정치적 이용으로 불자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시정됨 없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불자들의 인식입니다.

4천만 국민 여러분! 2천만 불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의 국방부 종교센타 중앙교회 방문 예배는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겠으나,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선출한 공인이고, 국방부 종교센타 방문은 청와대 비서실이 계획하고 숱한 언론기관에게 보도를 요청한 점에서 이미 개인 차원의 행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민주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권위주의 정부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국민들은 종교와 지역과 계층을 떠나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철저한 공인(公人) 의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정종교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만큼, 대통령이 국군장병을 위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종교센타를 방문하였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지척에 있는 타종교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불교 법당이나 천주교 성당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개인적 종교 행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올바른 도리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앙 행위가 보도된 정도의 일에 불교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교계가 보이고 있는 심각한 반응은 대통령의 중앙교회 방문과 예배 보도라는 일회적 사안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은 현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초래할 국론의 분열과 종교간의 공존과 평화 질서의 파괴라는 심각한 결과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7사단에서는 부처님을 모신 군법당을 폐쇄하고 창고를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상을 자루에 담아서 버리고 성물을 불태워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본종단이 자기 정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을 때는 천여 명의 경찰을 조계사에 두 차례나 투입하여 교권을 유린하였고, 사용자와의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근로자들이 괴신해 있는 성소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연행하였습니다. 특정종교 편향의 교과서,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검토 등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종교간의 형평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이유로 검정고시일이 급히 변경되어 부처님오신날 이틀 전에 시험이 실시되는가 하면, 일요일에 실시되던 교사임용고시를 번경한 것 등은 종교색을 지나치게 내세운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불교 관련 법령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에 대한 국가 행정의 부당한 간섭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임에도 현정부는 종교와 관련한 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어 왔던 것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우리는 편향된 종교 정책으로 인하여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우리 국민은 특정 종교의 종교인이기 이전에 핏줄을 나눈 한민족입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 다양함의 인정이야말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다양함을 부정하고 차별성과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면 한 집안이라도 화합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옛 선조들이 종교적 염원을 담아 새긴 마애불에 자기 종교의 성호를 긋는 행위는 자기 종교를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리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라는 말은 종교간에도 지켜져야 할 도리입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전에 있어서는 원칙과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특정 종교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조성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호와 의전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 종교에 대한 편애와 집착을 버리고 모든 종교가 더불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공인의 위치에서 평등한 종교 정책을 펴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최근까지 종단은 종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종교간의 편향 사례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 등의 각종 정책에 있어서 종교간의 형평을 잃고 있으며, 일선 행정 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편향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편향된 종교정책에 대하여 정부관계기관의 고위책임자와 일선행정 책임자들의 깊은 반성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편향정책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의례적인 일과성 사과 형식이 아닌 편향적 종교정책과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으로 시정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는데 있습니다. 불교인들과 양식있는 국민들을 납득하게 하는 것은 정부당국자들의 책임임을 알고 편향적 종교정책을 시정하는데 정부당국자들은 성의있는 노력과 결과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종교 편향 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교 편향의 사례를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의 편향 사례를 시정하고, 차후에는 편향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천만 불자 여러분!

불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차별적 종교 정책과 이번 일로 인하여 크게 상심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인내와 화쟁의 정진을 행하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기 위한 금강역사의 호법 원력을 세우고 부단히 정진하시기를 청합니다. 종단은 정부의 차별적 종교 정책을 바로잡고, 종교간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4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불교는 민족의 정신 문화를 이어온 종교로서 넉넉한 품으로 역사와 민족을 껴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불교계가 하나 되어 추진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공정·공명선거를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며,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분단 조국의 통일, 2002년 월드컵 유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일뿐만 아니라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망언과 괘창주의로부터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등 중차대한 과제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야 할 시점에서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국가와 종교가 더불어 발전하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0(1996)년 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송 월 주**

법회 안내

청주 보현사(0431)223-117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부산 미륵사(051)404-2100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30분

부산 불광사(051)809-142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부산 해월정사 (051)741-7762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고등학생법회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3시

환희사(02)735-864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예산 향천사(0458)35-3556
향천사 부설 유치원법회 매주 월 오전11시
유치원법회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중·고등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학생회법회 매주 월 오후4시
거사림회법회 매월 둘째주 일오후7시
유마거사림회 법회 매월 둘째주 일오전11시

제주 천왕사(064)42-0516
신중기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산신기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전북 남원 실상사 (0671)34-303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주한 獨대사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2일 크라우스 볼러 주한 독일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볼러대사는 "한국불교를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싶다"며 한국 불교에 관심을 표명했다. 월주스님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소개하고 독일통일에 관심을 보였다. 볼로대사는 지난해 9월 주한독일대사로 부임했다.



종단협 공명선거계도위 결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는 지난 13일 공명선거계도위원회(위원장 월서스님)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위원장 월서 부위원장 혜초(태고종 총무원장)스님 등 각 종단 대표스님이 참석했다. 불교공선위는 4월 10일까지 공명선거 홍보 및 계몽활동을 펼치며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선거 신고전화 (02)732-2611~3



남순지장회 본격 활동 착수

남순지장회(회장 김명철)는 지난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회원 38명중 20여명의 회원들과 지하(종단협 부회장) 시현(조계종 문사부장)스님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지도법사 법타스님은 북녘땅을 탈출한 결심과 용기를 지니고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길 당부하고 종단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재단법인 일념장학회 창립법회

재단법인 일념장학회(회장 양선법장) 창립법회가 지난 10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대학생(7명), 고등학생(10명)에게 각각 1백만원과 3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한국농아복지회 부산지부소속 장애인 10명에게도 3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교차로

KBS불교연구회에 불서기증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4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KBS불교연구회에 〈보살사상 경구선집〉(월주스님 편찬) 5백부를 기증했다.

진흥원 다보법회서 법문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이 오는 28일 오후2시 대한불교진흥원 주최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장병·학생에 성금전달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지난 14일 지역사단 장병들의 스케이트 대회에 참석,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스님은 또한 지역 초·중·고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안앙교도소에 떡국 공양



현성스님((사)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지난 19일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떡국 대중공양과 선망부모 제사를 마련했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 취임

원봉스님(태고종 청주 보현사 주지)은 지난 10일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새회장에 취임했다.

23일 천불암서 법문



월서스님(조계종 호계위원장)이 오는 23일 오전11시 천안 천불암 초청으로 법문한다.

법회사서 '보시행' 설법



법장스님(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은 지난 11일 군포 법회사에서 '보시행의 실천적 의미'를 주제로 설법했다.

'일승의 세계관' 강의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 불교기초강좌에서 '일승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의한다.

고운학회' 초대회장 피선



송석구총장(동국대)은 지난 9일 성균관대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된 '고운학회'창립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코오롱회장 취임 축하연

이웅렬씨(코오롱그룹회장)는 지난 1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구평회 무역협회장, 신현확전국무총리등 정·관계 재계 학계 인사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축하연을 가졌다.



인쇄문화협회장 재선



박충일회장(대한인쇄문화협회)은 지난 9일 인쇄문화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됐다.

스리랑카에 의류전달



백홍수씨(한-스리랑카불교복지협회 회장)는 지난 8일 본협회 회원들이 수집한 2천여점의 옷가지를 스리랑카 꼬떼콜롬보 등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문학평론가협 회장 선출

장백일씨(국민대 교수)가 최근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장

권영일씨(흥덕사 신도회장)는 지난 2일 열린 스카웃트불교지도자회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수석 졸업

동국대 전체수석:박혜정〈경상대학 경영학과〉 불교대 수석:진경스님〈불교대학 선학과〉
(※졸업식 1월 23일 오전10시30분 중강당)

승가대 전체수석:승원스님〈불교학과〉 불교학과 수석:삼홍스님 사회복지학과 수석:도영스님
(※졸업식 1월 24일 오전10시30분 정진관)



'96 인물

대학강의 나선 연극인 김성녀씨

뜨거운 무대열정 강단서 회향

출연작품 70여편… "찬불가 공연 꼭 참석"

"그동안 연기하고 공부해온 것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게 되니 진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악인으로 연극인으로 그리고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성녀씨가 오는 3월부터 교수로사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20여년전 연극 '한네의 승천'으로 데뷔해 지금까지 '에비타' '남사당의 하늘' '욕탕의 여인들' 등 70여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해 온 김씨는 요즘도 연극 '러브레터' '뮤지컬 올리버' 등 여러무대에서 분주한 연기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씨는 9년전 늦깍이로 중앙대학교에 입학, 지난해 중앙대대학원 한국음악과에서 2백년전 판소리와 현재의 창작판소리를 비교 연구한 '20세기 창작판소리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와 목원대에서는 음악을 지도하게 되고, 성균관대 사회교육원에서는 연기부분 총책임을 맡아 지도할 예정입니다" 라는 김씨는 "무대가 아닌 강단에서는 초보자인 제가 과연 지도자로서의 몫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국악의 원류는 바로 불교음악이지요. 그래서 찬불가 프로그램 진행도 제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김씨는 현재 불교TV 우리들의 찬불가 프로그램을 시명스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불광사 광덕스님으로부터 혜명(慧明)이라는 불명을 받고 찬불가 보현행원송 공연에 참가한 김성녀씨는 찬불가 공연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열정을 보이는 불자 만능엔터테이너이기도 하다.

김씨는 남편 손진책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미추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연극 '최승희'를 공연할 계획이며, 3월중에는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합숙소 등을 갖춘 극단 미추 10년의 결실인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의 보금자리 '미추산방'으로 이사 하게 된다.

이은자 기자



李 국무총리 나눔의 집 방문 위로

이수성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을 방문, 정신대 할머니를 위로하고 위문품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혜진스님으로부터 나눔의 집 현황을 듣고, 나눔의 집 진입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날 나눔의 집 방문에는 광주군 군수 박종진씨, 광주군 국회의원등 30여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게시판

▲복지관 회원 및 후원자 모집=석왕사 부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이 공부방, 과학나라, 포장기술 등의 복지프로그램 회원및 복지관 컴퓨터 기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모집=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3월19일~6월16일까지 제5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02)744-4503

▲어린이 연극학교 회원 모집=극단 동쪽나라(대표 김형균)는 제7기 연극학교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민학교 1학년~6학년, 모집마감은 22일까지. (02)263-8434

▲신입생 모집=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오는 23일까지 불교학과 외 4개학과의 9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2)511-2026

▲노인급식 후원자 모집=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은 성북내 독거 및 영세 노인들의 무료급식을 도울 후원자를 모집한다. (02)985-0161

▲불교기초교리 강좌=광주원각사 청년회(회장 김종주)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원각사 법당에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열고있다. (062)223-3168

▲수강생 모집=(사)한국 차생활 문화원(원장 강승희)은 4개월 과정 기초반 전문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2일. (02)732-9027

▲노인대학생 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상락노인대학 회원을 모집한다.(02)852-0625

▲홈패션 수강생 모집=법동사회복지관(관장 종실)은 3월 5일 개강하는 홈패션강좌의 수강생을 선착순 10명 모집한다. (042)633-1141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입 합창단원 모집

90년 창단, 다수의 공연과 찬불 및 선법가, 뮤직비디오를 제작중인 본 합창단은 앞으로도 정기발표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찬불의 소리는 그윽합니다.
동참하셔서 법향 가득함을 느껴보십시오.

대 상 25세 ~ 45세의 여성으로서 성악이나 합창에 소질과 경험있는 분
오디션 장소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강당 (범일동 국제호텔 뒤)
오디션 일시 1996. 3. 13 (水) 14:00
3. 27 (水) 14:00
문 의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051) 634-5114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051) 403-7077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金日河(홍명) 스님 설법테이프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테이프 ① ②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전통호흡법을 소개하고 호흡과 기(氣)와 마음, 선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전통적인 단전호흡, 기(氣)수행원리를 밝혔다. 테이프 ③은 전국의 초능력자 수십명을 취재 보도한 바 있는 영남일보 변성석 기자와 대담한 취재 형식의 내용이다. 테이프 ④는 법문을 듣는 수행 청중과 토론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불교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氣)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가?」

전국 불교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下편도 곧 나옵니다.

대중불교음반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2-1
(053) 755-9537, 742-4017

법화경을 바로 알자
독도는 우리땅
법화경은 <법화삼부경>의 약칭입니다

요주의

◇ 법화경에는 <나무묘법연화경>을 부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 법화경에는 <제목봉창>을 하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 일본의 어떤 종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척하고 일본의 한 승려를 부처로 추앙하는 데서 〈남묘효렌게교〉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말로 〈나무묘법연화경〉입니다.

"부처를 바로 알고 법화경을 바로 공부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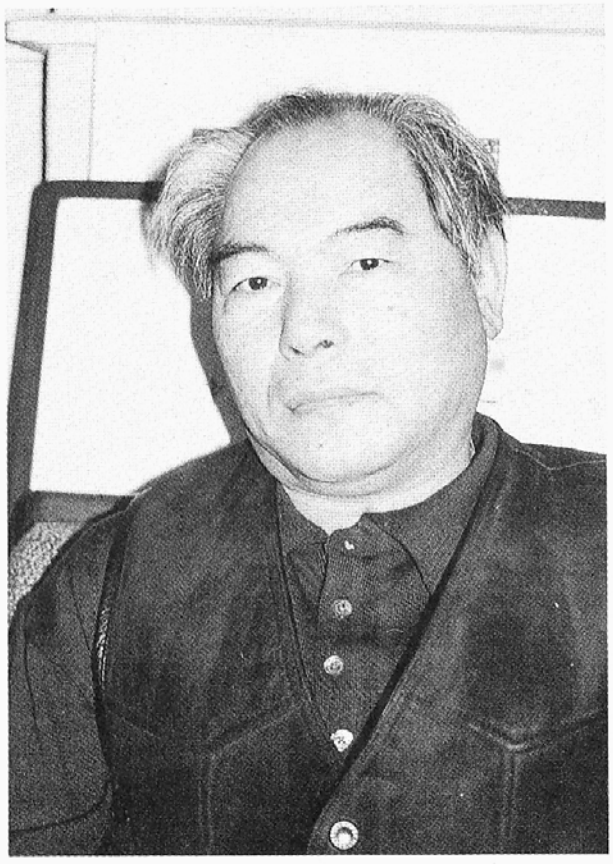
한국승가대학원
(사)한불총·법화경교단
법주 최공덕
■전화 : (053) 952-8711 / (051) 645-6224
■서신 :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선사들 화두 내삶의 방망이"

내마음 속에는 법정이 있습니다 문제 생길때마다 재판이 열리고 '최종선고'를 행동좌표로 삼아요

산문밖의 선禪

문학평론가 **윤재근** 씨



'여시오어(汝屎吾魚)'
'불용우도(不用牛刀)'

앞의 구절은 원효스님과 혜공스님의 일화에 나오는 것이고 뒤의 구절은 중국 선종의 거백 조주스님 선문답의 한 토막이다. '함께 물고기국을 먹고 너는 똥을 누었지만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는 이 유명한 이야기의 토막이나 '나는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다'고 도의 근본을 묻는 제자를 압도한 조주 스님의 선기(禪機)는 언듯 듣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두 구절은 눈 앞의 현상에 얽매여서는 아무런 문제도 풀어 내지 못한다는 공통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어의 한계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초월적인 교훈의 방망이인 셈이다.

이 굵직한 방망이 두개를 마음속에 지니고 인간 세상이 아름다워 지기를 희구하며 학문의 길에 몸을 던진 윤재근교수(한양대 국문학·60).

동양고전 생활속에 접목

윤교수는 장자 노자 공자 맹자등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생활과 접목시켜 풀어 쓴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등 철학우화 시리즈로 독서계에 스타가 된지 오래다. 영문학과 미학을 전공했고 '문화전쟁'이란 말을 자주 쓰는 윤교수에게서 동양고전에의 해박한 편력을 눈치 채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 윤교수가 웬만한 선방의 수좌만큼이나 선 수행에 몰입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일이다. 그러나 강단에서의 그 느릿한 어투와 기가 질리게 정연한 논리는 오랜 시간을 화두풀이로 살아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품일 것이다.

"내 마음 속에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거기서 최종 선고를 받아 행동의 좌표로 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의 법정에는 판사와 변호사가 없습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없는 법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검사만 있다는 얘기인데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다.

"어렵게 생각 마세요. 나의 법정에는 검사만 있다는 것이고 그 검사는 서슬이 퍼렇게 눈을 부라리며 나를 심문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매몰차게 따지고 드는데 그 검사는 다름아닌 역대 큰 스님들의 화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시오어'나 '불용우도'들이 다 윤교수의 검사들이란 얘기다. 검사들이 휘두르는 방망이 앞에서 윤교수는 삶의 본질을 꿰뚫고 인간의 진면목을 알아 내는 것이다. 이렇게 검사를 모시고 살기 때문인지 윤교수의 삶은 분명한 선을 갖고 있다.

> "재가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來生에 수행깊이 더할 수 있겠죠"

"나는 이생에서 성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여기서 성불할 수 있는 인연공덕을 가졌다면 수행납승이 되었겠지요. 그냥 속진에 묻혀 옛 조사들의 공안이나 훑으며 살고 있으니 성불은 어림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것도 그때문입니다만."

굳이 성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서 재가자로 할 수 있는만큼의 최선만 다하면 내생(來生)에 또다른 모습으로 수행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윤교수의 소신이다. 내생에 대한 믿음과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윤교수의 불교관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고 있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적(禪的)인 삶' 그것은 자칫 선사들의 문답과 기행(奇行)을 흉내 내는 또하나의 기행을 만들기 십상이다. 윤교수의 경우 마음속 법정의 서슬 푸른 검사가 휘두르는 방망이가 있어 조사들의 화두를 자기 삶의 열쇠로 현전시킬 수 있다.

선구·공안 자기화 해야죠

서적을 통해 익힌 선구들과 공안들을 생활 현장에서의 체험으로 자기화 시킨 글들도 제법 많이 쌓였다는 은근한 자랑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모든 글귀들이 삶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어떤 대목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느냐가 문제겠지요. 운문선사 어록에는 '병과 약이 서로 의지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병과 약이 서로 의지하듯 우리 생활 속의 선과 악도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선사들의 화두는 나를 일깨워 주는 뜨끔한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윤교수는 어떤 자리에서건 선을 얘기하길 꺼린다. 각자가 검사를 모시고 그방망이 아래서 치열하게 사는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일뿐 말로 이해하는 것은 이미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선을 한 자로 풀면 '사량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간다.

"지금의 나를 사량하는 것 지금 끓어 오르는 욕심을 사량하고 분노를 삭히는 것 이런 사량의 의미가 세상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선수행이 아닐까요. 그것을 사량하지 못할 때 나는 여지없이 마음 속의 검사에게 방망이 찜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욕심 사양하고 분노 삭이기' 가장 절실한 수행

무엇을 견성이라고 하는지요

문 조사님들의 가르침에 보면 염불이나 독경·계행·보시엔 과보가 따르지만 불지라면 반드시 견성성불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견성이라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만 제 경우는 마음이 주인이라고 굳게 믿는데 그렇게 믿고 수행하는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 저희들로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어떠한 다른 경계가 있는 것인지요.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전·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답 모르는 것도 탈이지만 너무 잘 알면 아는게 앞을 막아서 성불하기 어렵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거리게 된 것은 오랜 과거로부터 살아온 자기에 의해서인데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와 같죠. 그런데 흙이 덮여서 나무가 제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명에 가려서 인간도 영원한 근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란 제 뿌리를 보는 것인데 달리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자기는 부(父)입니다. 지금의 자기는 자(子)입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는게 견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부고 생각을 냈다하면 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자가 부로 들어가 하나가 되고 생각을 냈다하면 부가 자로 나와서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자기, 참자기라고 해도 됩니다만 그것은 까맣게 잊고 지금의 자기만을 자기라고 알고 있으니 말하자면 애비를 모르는 자식인 셈이지요. 애비없는 홀로자식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부와 자를 합쳐 주인공! 한 것입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데에 견성의 길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전도 보고 염불·지계·보시도 해야지요.

그러나 경전을 보고는 '아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벌써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 말은 삼천년전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요 나로부터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있기에 책을 볼 수 있고 독경도 하고 염불도 합니다. 그러니 그게 어찌 그 옛날의 부처님 말씀입니까? 오늘의 내것이지요.

자기를 형성시킨 부에서 자가 나왔고 자가 부로 돌아가매 부와 자가 본래 둘이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진실하게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분명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어떤 경계따위를 상상하는 것부터가 장애입니다. 그 또한 주인공에 맡기세요. 또 공부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성불해야지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욕심을 지닌채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놓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으면, 세세생생의 굴레가 굴레가 아니라면 그게 부처이지요.

식사할 때의 합장자세는

문 식사를 할 때에 합장을 하는데 그 합장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양주상·대구 북구 태전동〉

답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체가 더불어서 주인공이지 개별적인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혼자 먹는게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내 몸속의 생명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 내가 밥 한그릇 먹는 게 공식(共食)이지요.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농사지은 사람의 수없는 손길이 거기에 갈아들었을 것이고 김매는 사람, 비료 생산한 사람, 쌀을 날라다 준 사람, 밥 지은 사람… 수도 없는 사람이 다 함께 내가 밥 한그릇 먹는 것을 거들었으니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해야 맞지요. 그러니 공양(供養)은 공동의 이양(利養)인 공양(共養)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게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올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혼자서 밥 한그릇 먹어도 이것은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니까 공양 하셨어요? 하고 물질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체가 공식하며 돌아가니까 한그릇 공양 올리고도 한 그릇이 되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 끊어지지 않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잘 음미해 보세요.

부처님 참배는 어떤 마음으로…

문 불자들이면 법당 앞을 지나칠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불전에 참배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전주연·광주 북구 운암동〉

답 그거 간단합니다. 비록 수만개의 사찰을 참배하게 되었다해도 왜 그 '일체제불의 노래' 있지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다, …' 하는 노래 그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량에 가서 참배를 하든 주인공! 하면 그냥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면 따로 빌 것도 없지요. 부처마음이 그대로 따라줍니다. 그게 비밀아닌 비밀입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제5기 불교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 모집

법회와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레크리에이션으로 고민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방편을 찾고 계십니까? 본 회에서는 법회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불교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여러 지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간 : 불기 2540년 3월 19일 ~ 6월 16일자 (종합실습 1박 2일 포함)

강좌내용
1. 불교 교리
2. 불교레크리에이션론
3. 찬불가 (찬불가, 율동, 응용)
4. 음악 (악보 보기, 동요, 가요, 응용-싱어롱)
5. 리더쉽
6. 레크리에이션론
7. 모임의 신행
8. 프로그램의 작성
9.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리벤트)
10. 캠프
11. 오리엔티어링
12. 하이킹
13. 만들기
14. 게임
15. 춤 (민속춤, 레크리에이션 춤)
16. 지도자의 자세
17. 심리학
18. 탈출
19. 종합실습

강 사
법현스님(본회 회장), 장명문 법사(본회 연수원장), 이성훈 선생(1급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선재 이벤트 대표), 정기자 선생(본회 부회장), 권양숙 선생(불교음악지도위원), 신명숙 선생(미술 지도위원, 교사), 김희선 선생(음악 지도위원), 이상종 선생(레벤트 전문가), 김재성(레크리에이션 전문위원), 박종 교수(불성 개발 연구원장) 이성주 법사(유치원장)

강의장소
대각사(지하철 3호선 종로3가 1번 출구 옆 50m)

※특 전 : 2급 지도자 자격 수여(1기 양경옥 선생의 경우 한누리 독서운동본부의 교수로 활약하고 있음)

※참가비 : 200,000원

문의 및 접수 (02) 935-4967 본회 사무국
(02) 433-1507 선재 이벤트
(02) 744-4503 대각사

불교 레크리에이션 포교회 회장 법현

성명서

우리 한국불교승가회 성직자와 지도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특정종교 비호와 편파성에 대하여 이는 국민간의 위화감을 부추기고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2000만 불자와 국민앞에 위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당시 불자들에게 「나는 종교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공약을 수차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2.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난 후 청와대에서 목사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갖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는가 하면 바쁜 국사에도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보는 여유와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언론에 크게 보도했다.

3. 분위기에 고무된 과잉 충성자들과 일부 광신자들은 부천 17사단 예하 법당에 성물을 불태우고 불상을 끌어내고 훼손하는 등 군불자들의 사기를 누르면서 신앙을 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처벌이 요구되었던 당시 군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시켜 대통령 가까이서 핵심부에 두고 있으니 민·관·군·경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불교인의 불이익론이 뜬 소문이 아니다.

4. 우리는 한 개인의 종교적 철학이나 신앙심에 대하여 탓할 권리도 없고 시비를 논할 생각은 더욱 없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신분은 모두를 포용하고 대도무문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분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더 무서운 종교간의 갈등마저 부추기는 대통령의 처세는 국가의 미래를 매우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니다.

5.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호법승가회 성직자와 지도자 일동은 다시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방부 장관 해임, 관련자들을 조치할 때까지 정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국불교 호법승가회

고문	미타사 **홍법정**	천룡암 **정아정**
회장	불광사 **강자현**	성덕사 **이만오**
재무	보탑사 **구정각**	대성암 **김송암**
교무	청암사 **신청암**	법운사 **법 운**
	창덕사 **최성철**	아도암 **김서봉**
	천영사 **김법성**	상원사 **혜 일**
	광덕사 **엄보덕**	일승암 **임혜원**
	보운정사 **도 흥**	대원사 **대 원**

주 소
인천시 서구 석남1동 199
덕불산 불광사 (승가회본부)
032-583-5238

고려말 불교 서사물 유교적 가치관 제어기능

고전문학회 '국문학과 불교' 학술회의

사대부 찬불시 外儒心佛 세계관 잘 표현
불교설화 세속 삶 극복 서사문학 체계화



◇한국고전문학회는 지난 7·8일 이틀간 해인사 홍제암에서 학술회의를 개최, 불교가 국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가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고전문학회(회장 서대석)가 '문학의 해'를 맞아 '국문학과 불교'라는 주제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 불교문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고려말의 시대적 배경과 사대부, 그리고 그 시대의 불교를 △불교사상과 소설미학 △여말 유학자들과 불교와의 관계 △향가와 불교 등 3가지 주제.

이강옥교수(영남대)는 '세속적 삶의 두 모습과 그것의 극복방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불교계 설화에 나타난 세속적 삶에 대한 시선과 그것의 극복방식은 서사문학의 체계화와 문학사적으로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불경이나 불교계 문건들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과 수양이나 신앙체험에서 형성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세속적 삶의 질서와 그 가치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깨달음이나 해탈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가'와 '가족관계의 가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의 긍극적 이탈을 지향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결국 이들 불교계 서사물들은 세속과 그것의 초월이란 문제를 작품의 중심부에 놓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의 비교는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당시의 삶에 대한 가치기준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세속적 삶의 무반성적인 〈사씨남정기〉와 삶 자체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구운몽〉은 당시 사대부들의 이념적 태도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이는 유병환교수(공주대)가 '구운몽의 불교사상과 소설미학'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불교사상의 허구화를 통한 소설창작과도 무관치 않다. 유교수는 〈구운몽〉에서 나타난 수많은 대응과 상징, 복선의 기법들은 모두 연기(緣起)와 空이라는 불교사상의 양대 부문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심오한 불교사상을 어떻게 소설의 주제로 차용해 허구화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노년기에 접어든 사대부들의 유교적 시각을 뛰어넘은 불교적 관점의 세속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방법을 찾기 위한 사상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유불교체기인 고려말 사대부와 불교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전수연교수(안동대)는 '여말 사대부와 불교'라는 발표에서 여말 사대부에게서는 승려들과 교유한 시문, 비문, 각종 도량의 소문, 불교비판의 글 등 불교관련 글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표교수(홍익대)는 '여말 유학자의 불교 관련 시 연구'에서 무신정권이후 음찬시(音讚詩: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四讚詩)를 중심으로 한 찬불 유형의 시가 성행한 것은 당시 사대부들의 '外儒心佛'의 절충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교적인 시가 이념적으로 내용에 충실한 면을 보인 반면 불교적인 시는 내면을 천착하는 시로 발전되었고 때로는 불교의 교리와 인간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시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일본 국학원대학이 개최한 '국제화와 민족문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보화시대의 종교변화'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교단 권위 약화…종교활동 국제화
성직자 일반신도 구별도 불분명

日 우에노교수 '정보화시대 종교' 논문 주목

종교생활이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유경쟁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활동면에서는 종교간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정보가 교류, 수합된다고 예측했다. 지적 상황면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되어 교단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약해지고 정보의 통합이 어려워진다고 예측했다. 또한 성직자와 일반신도 잠재적 신도와의 구별이 약해지는 것도 정보화 사회의 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종교를 비롯하여 정보문화 가족공동체의 측면에서 국제화가 민족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남수미 기자

정보화 사회에서 종교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예측한 논문이 일본에서 발표돼 종교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국학원대학 이노우에교수가 지난달 21일 일본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의 '국제화와 민족문화'를 주제로 개최한 창립 40주년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정보화시대와 종교의 국제화'가 그것.

이노우에교수는 논문에서 정보의 전달범위와 수단이 크게 비약하게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역사 전통 종교의 형태가 크게 변모된다"고 전제하고 조직, 활동, 지적(知的)상황의 3가지 측면에서 종교단체의 변화를 예측했다.

먼저 종교단체는 조직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상호유기적 관계를 갖게되며 네트워크형 또는 다국적 조직체계로 발전한다. 또한 개인의

불교 우주관 토대 '삶의 내면' 추구

'고운 최치원과 한국사상' 주제 학술회의



◇김충렬교수



◇유영봉교수

사산비명은 정치·역사·철학 담긴 금석학 백미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최치원의 사상과 업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고운 최치원과 한국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유교사상연구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충렬교수(군산대)는 '고운 최치원의 문학사상에 관한 연구-그의 시에 나타난 사상을 중심으로'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고운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이해와 학식이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불교가 이미 그의 성격이나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김교수는 사산비명과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尙)'이라는 여섯수의 시를 예로 들었다. 왕이 존경하는 국사(國師)의 비명을 짓는데 승려가 아닌 유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고운이 선택됐다는 점은 그의 문재(文才)와 함께 불교에 대한 그의 사상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희랑화상' 시 여섯 수는 고운의 불교적 학식외에도 그가 일상에서 얼마나 불교사상에 젖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여섯 수중 특히 '증운문난야지광상인(贈雲門蘭若智光上人)'과 '기호원상인(寄顥原上人)'의 두 수는 불교가 고운의 사상과 융합돼 표현된 道와 詩가 함께 고도의 경지에 도달해 승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김교수는 설명했다.

또 '우정야우(郵亭夜雨)'는 定에 들어 참선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바로 자신과 같다는 고백적인 시라고 설명하고 이 속에는 인생의 내면을 깊이 추구하고 우주의 이치를 궁구하다 보면 스스로 부딪치는 동일한 길이요 하나의 도로 귀결된다는 불교적 사상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봉교수(공주대)는 '사산비명의 이본(異本)현황과 전시대의 평가에 대하여'라는 발표에서 사산비명은 불가의 내용을 담은 비명이라는 고정된 틀에 개인의 생각과 사상, 정치현실, 역사적인 사실을 용해시킨 최치원 문학의 정수라고 규정지었다.

유교수는 또 진감비명(眞鑑碑銘) 숭복사비명(崇福寺碑銘) 지증비명(智證碑銘) 낭혜비명(朗慧碑銘)등 사산비명과 최문창후전집(崔文昌侯全集), 해운비명주(海雲碑銘註)등 13종의 이본(異本)을 설명하면서 사산비명은 당시 신라인들의 삶을 사륙문(네 글자와 여섯 글자로 구성된 대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생동감있게 표현한 금석학의 백미라고 설명했다.

〈우〉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대승사

대웅전

楊柳稍頭甘露灑
(양류초두감로쇄)
蓮華香裏碧波寒
(연화향리벽파한)
七寶池中漂玉子
(칠보지중표옥자)
九龍口裡浴金仙
(구룡구리욕금선)

일체만물 합일된 초탈경지 표현

버들로 머리 감고 감로를 뿌리고
연꽃 향기속에 푸른 파도가 서늘하네
칠보 연못에 옥동자를 띄우고
아홉 용이 입으로 금빛신선을 목욕 시키네.

해설 대승사(大乘寺)는 경북 문경의 사불산에 있는 절로 신라 진평왕 9년(587)에 망명스님이 창건한 고찰이다. 이 산이 사불산(四佛山)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산마루에 사면석불상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도 이 석불이 있다. 신라 진평왕 9년에 이 불상이 비단보자기에 쌓여 하늘에서 떨어지니 왕이 직접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망명스님에게 절의 창건을 하게 했다는 것이 사찰창건 배경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대승사 대웅전의 주련 내용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극치의 시어들로 엮어져 있다. 첫 연에서의 불가사의한 장면묘사는 버들이 머리를 감을만큼 많은 양의 감로수로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둘째 연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연꽃 향기와 푸른 파도의 대조는 대조의 경지를 넘어 일체만물의 합일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칠보 연기에 옥동자를 띄운다는 불가해의 장면도 부처님의 위대한 법의 세계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넷째연에서도 불가해의 세계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양의 장면이 보인다. 아홉 마리의 용이 금빛 부처님을 목욕 시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갖는 신성성과 부처님을 극존칭으로 형상화한 금선의 절대성이 어우러져 목욕을 시킨다는 행동으로 상상을 현실화시킨 초탈한 표현 앞에서 우리는 짜릿한 법열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련은 불가사의의 세계를 부처님이라는 절대적인 법의 상징 속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개체의 합일과 분리 자체가 하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신라, 복속민 교화에 불교 활용"

경주대 김창호교수 주장

신라는 새로 편입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지배와 선심공세에 불교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김창호교수(경주대)는 최근 고신라의 주변지역 통치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고신라의 불교 관련 금석문'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울주 천전리서석 을묘명' '진흥왕 순수비' '대구 무술명오작비'등 고신라의 불교관련 금석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산 마운령 황초령 등 3곳의 진흥왕순수비는 모두 568년 고구려에서 신라에 편입된 영토에 세워진 것으로 순수비에 나오는 도인들은 고구려 출신의 승려로 신라가 새로 정복한 고구려의 옛땅에 살던 백성들의 정신적 지배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대구 무술명오작비에 나오는 두 승려는 수리시설과 관련된 제방의 축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되며 이들은 당시 대구지역이 신라에 부속되고 나서 민심을 얻음과 동시에 승려를 통해 지방민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신라인으로 만드는 데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호 7면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와 '나의 수행일기'는 기사 넘쳐 쉽니다. '소설 수미산'은 7면에 실습니다.

아봐타 코스

一切唯心造
(뜻대로 사는 길)

Avatar®

어떤 관점

세상의 모든 이가 당신의 일부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일부여서
당신의 모든 판단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고
당신의 모든 비평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될 조건없는 자비를
당신 스스로 멋지게 키울 것입니다.

지금 국내외에서 구도자들은 물론 정신세계(심리학, 철학, 4차원 세계)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신풍을 일으키고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닌 확실한 방편이 여기 있습니다. 아봐타 코스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도 요구하지 않으며, 더구나 외울 것은 하나도 없다. 마스터와 첨가지 시이에 대화도 거의 필요없습니다. 어떤 종교와 마찰도 있을 수 없으며 이곳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종교를 더욱 더 살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코스는 구도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소원도 패시된 방편을 스스로 즐기다 보면 '아하!' 하고 스스로 증명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마스터의 역할은 그 코스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지 열길로 가지 않도록 셀파(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맛은 스스로 경험은 해야지요. 이 코스에서는 공개파정과 비공개파정이 있습니다. 이 방편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엄지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긴과해버린 것들도 있지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과정이지요. 단지 전의 알짜한 건치나 알음알이에 집착해 있거나 이리 저리 해석하는 것들은 더더지기만 하지요. 공개파정은 본 코스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코스에서도 많은 시람들은 생각들이 스스로 쉬어지게 되고 번성들을 하게 되지요. 건축을 하는데 여러 새로운 공법들이 개발되었듯이 이것도 참 나를 찾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말씀 김시합니다.

아봐타 코스 문의
☎ (0631) 78-5161
호출 012-634-5161
잔님 목표시 용세동 산3#
대한불교조계종 월산사
안개된 아봐타스의 등준합장

Ⅰ. 大學基本課程 : 초기불교부 특강 및 대승불교부 36강 강의

佛教思想講座

1. 강의일시 : 2540('96)년 3월 5일개강. 제1,3,5주 금,토강의 금 : 19 : 00-21 : 00
2. 법사 : 최봉수박사(동국대교수, 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 토 : 15 : 30-17 : 30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요망 전화 237-4438/9

*초기불교부 특강.
1. 원시불교 자료의 오대(五大)영역
2. 원시불교 교육의 방법론적 이념으로서의 점교성(漸敎性)
3. 원시불교의 오안설(五眼說)
4. 우주및 역사전개의원시불교적 동인(動因)으로서의 업(業)
5. 원시불교의 공계(空界)에 대한 일 고찰
6. 원시불교 깨달음의 구조
A. 반야(般若)부
1. 원시불교와 대승불교
2. 중생즉불(衆生卽佛)의 도전적인 명제
3. 열반의 한계와 자성(自性)의 부정
4. 존재와 비(非), 무(無), 공(空)
5. 방법으로서의 반야(般若)
6. 목표로서의 반야바라밀다
7. 피안(彼岸)의 보리와 공성(空性)의 체득
8. 보살사지와 구경열반의 구조
9. 사지연기(四支緣起)의 우회적 선언
10. 가테(Gate) 가테 파라가테(Para Gate)
B. 법화(法華)부
11. 반야와 법화
12. 방편즉보리(方便卽菩提)의 참뜻
13. 수기(授記)의 방식과 목적
14. 회향(廻向)의 이유와 논리
15. 다보여래(多寶如來)의 출현
16. 오탁악세(五濁惡世)와 여(如)의 세계
17. 십여시(十如是)와 여의 세계
18. 여래십호(如來十號)와 여의세계
19. 십팔불공법(十八佛共法)의 붓다
20. 비(悲)와 대비(大悲)
C. 화엄(華嚴)부 십주경(十住經)
21. 환희지(歡喜地…十大戰을 세움)
22. 이구지(離垢地…十善道를 행함)
23. 발광지(發光地…三法助을 관함)
24. 염혜지(焰慧地…三十七卽道品)
25. 난승지(難勝地……四攝를 닦음)
26. 현전지(現前地…十二緣起를 관함)
27. 원행지(遠行地…十波羅蜜을 닦음)
28. 부동지(不動地…無生法忍을 얻음)
29. 선혜지(善慧地…四無碍智를 얻음)
30. 법운지(法雲地)보살과 붓다
D. 정토(淨土)부
31. 극한 사황과 범부(凡夫)의식
32. 극락정토와 왕생(往生)
33. 아미타불과 본원력(本願力)
34. 믿음과 염불(念佛)과 안식(安息)
35. 자력(自力)과 타력(他力)
36. 일불승(一佛乘)의 보살도(菩薩道)
*총결론

Ⅰ. 大學院專攻課程 : 80화엄경 및 화엄론 40권 종합강의

華嚴經大講座

1. 강의일시 : 2540('96)년 3월 8일개강. 제2,4주 금,토강의 금 : 19 : 00-21 : 00
2. 법사 : 각성큰스님(삼일선원, 삼일불교교육원상임지도법사)토 : 15 : 30-17 : 30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요망 전화 237-4438/9

財團法人 呑虛佛敎文化財團
附設 三一禪院·三一佛敎敎育院
〈전철3호선 약수역 ☎237-4438~9〉

海東佛教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 741-0495~6 / 팩스 : 763-4603

海東佛教大學
학 장 장이두
대학원장 김지견

현대불교
구독신청문의 7737-0693
광고신청문의 7737-0693
팩 스 7737-0693

고은 불교대하소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서로 이름을 지어 부르기로 합시다. 나는 만화라고 합니다" "합두라고 불러도 되고… 이 사막에서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막의 시간

새의 날개죽지에 절묘하게 얹혀진 채 땅바닥에 내려온 만화는 그 어깻죽지에서 내려지자마자 거칠게 구를러야 하였다. 땅바닥은 숫제 모래바닥이었다.

새는 그 암청색 눈으로 한번 만화를 돌아다보았다. 눈여겨보니 새의 머리 위에는 어떤 장식 같은 빨간 술이 달려있었다. 그것은 퍽나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이윽고 새의 커다란 두 날개가 퍼력이며 모래먼지를 일으켰다. 어느새 새는 공중으로 떠올라 하늘 저쪽을 향하고 있었다. 필경 오던 곳으로 가는 길이라면 나아 나아성(尼雅城) 쪽의 사막으로 향하는 것인가.

누란에서 얼마나 까마득한지 모르는 나야는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 현장이 몇백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당나라로 돌아오는 관찰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그려져 있다.

이곳—니야성—에서 동쪽으로 가면 대유사(大流沙)에 들어간다. 모래는 드넓게 펼쳐져서 바람에 따라 일었다가 불려 흩어지다가 한다. 사람이 걸어가도 발자국이 남지 않고 결국에는 미로(迷路) 투성이가 되고 만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저 광막할 뿐이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좋을 것인가를 알 길이 없다.

그 때문에 모랫길에는 해골을 모아놓은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수초(水草)란 거의 없으며 뜨거운 바람이 많다. 그 바람이 불면 사람도 짐승도 이상하게 되어 발병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노래소리를 내거나 어느 때는 엄엉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뚜렷이 보려하거나 들으려해도 머리가 멍해져서 그 정체가 포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어가기도 한다.

아무튼 악귀의 짓거리일 것이다. 4백리 넘게 가자 르카라의 폐허에 이르렀다. 이 나라는 사람 하나 없이 된지 오래이고 자잣거리는 황량하게 버려진 채였다.

여기서 동으로 6백리 넘게 가자 샤르마다나 폐허에 이르렀다. 이곳은 옛날의 차말국(且末國)의 땅. 성이나 저자는 모래 위에 솟아있으나 인연(人煙)은 끊어져버렸다. 여기서 동북으로 1천리 넘게 가자 나바파의 폐허에 이르렀다. 옛날의 누란이었다.

여기서 현장의 출국과 귀국의 고행을 담은 기행(紀行)의 본문은 끝난다.

나야 앤데력 철천을 아울러 로브노르강 남쪽기슭에 이르는 서역남도(西域南道)의 여러 오아시스가 지난날의 흔적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사막 속의 무인지경으로 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사막으로만 되어있는 누란의 폐허 가까이 내려진 만화는 본능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어떤 짐승이 낯선 곳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통한 확인을 되풀이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몇번이고 사방을 돌아다 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

라고 이미 모래알이 들어가 있는 입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입안의 모래 몇알도 뱉아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누란의 굳은 점토질의 흙덩어리로 된 꼭대기에 남겨진 스투파였다.

그 전체가 사막에서 올려다보면 누군가가 일생을 다해서 만든 인조(人造)의 작은 산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거기에 아무런 기교도 과시함 줄 모르는 오랜 무언의 스투파가 마치 탑의 상륜부(相輪部)처럼 공중에 두드러지고 있었다.

만화는 그것을 돌아지게 쳐다보다니 그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지난날 조선땅 서해의 한 섬에서 익힌 예배방식은 인도나 티벳쪽의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배와 약간 달랐다. 아무튼 만화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무릎을 꿇고 모래바닥에 놓인 그의 두 손 바닥과 함께 이마를 대는 큰절을 하였다.

한동안 그대로 동작을 멈추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듯이 그의 하반신이 무능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스투파 꼭지 위의 허공에 대고 한없이 부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다.

그는 누가 지은 것인지도 모르는 시 한 수가 떠올랐다. 그 시를 중얼거리는 입모그의 열릴 줄 모르는 입이 열린 셈이었다.

본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누가 왕은 돌일까
형편없는 내 솜씨를 내보여
수미산의 모습을 설명하지만
그런 줄 모른다면
부질없이 크기를 잴 뿐인가
(元來精巧
是誰雕石
謬我拙工
強論相狀
如若未曉
徒勞寸尺)

이것은 당나라 현사사비(玄奘師備)의 시인데 그는 항상 "지금 이 몸에 진리가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말해보아라. 이 병어리야"하고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 세가지 병을 제도할 것을 지향했던 사람이다.

또한 그는 선사(禪師) 가운데 가장 균형잡힌 조화를 실현하여 어떤 비약 따위도 녹여내는 설봉(雪峰)을 사사함으로서 그 스승에 의해서 비(사비) 두타(頭陀)라고 불리었다.

도무지 다른 선승들은 한철을 지내면 어디론가 떠나기 십상인데 그 현사사비는 전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처박혀 있기에 하다못해 설봉이 "그대는 어찌하여 행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 대답이 있었다.

"초조(初祖—달마)도 동토(東土)에 오지 않았고 이조(二祖—혜가)도 서천(西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디로 갈 까닭이 없는 무르익은 경지가 드러난 대답이었다. 바로 그 비두타가 읊조린 것들이 훨씬 뒤 본격적으로 모여져 전해오다가 조선땅에 남아있는 것을 명나라 말기야 중국땅에서 엮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어찌어찌하여 무육도 만화에게까지 들은 풍월이 되었다가 그의 천상계를 마친 이래의 첫 환상(還生)에서 기억해낸 것이었다. 시 한편이 이렇게도 온갖 인연을 따라 한날의 만들레 씨앗이 날아다니다가 엉뚱한 곳에서 꽃을 피워올리는 것처럼 방금 도착한 누란의 만화에게 읊어진 것이다.

엉뚱하다고 하지만 어찌 엉뚱한 것 뿐이겠는가. 실로 그 시를 읊조린 사람에게 하나의 기구한 필연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만화의 천상 경력으로 보아 이 시가 내보이고 있는 무서운 정직과 겸허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미 그 시는 지난 날의 한 선객이 오달(悟達)한 정신으로 표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수행으로 나아갈 한 사람의 세계에 자리잡아 그가 지은 시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권의 시도 중생의 세세생생과 똑같이 죽었다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일을 연면(連綿)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시도 노래도 춤도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만화가 얼마나 다른 만화로 변하였는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과연 만화의 이목구비가 전생 무육도의 그때와는 달리 아주 빼어난 것이었다. 그것이 천상세계에서 산 흔적이거나 그 천상세계를 떠날 때의 극한적인 고통을 받은 나머지의 흔적에 의한 아름다움인지도 모른다.

그런 만화가 머리를 들었다. 사막의 막막한 환경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느낄 만큼 아니 어떤 환상(幻想)과도 같은 아름다운 남자의 얼굴이 그동안 엎드려 있다가 들어 올려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스투파에의 바친 예배를 마친 눈으로 그 스투파아래 바위덩어리와도 같은 언덕을 내려다 보았다.

거기에 합두가 서 있었다. 그 합두도 무육도의 아름다운 니승(尼僧) 합두 이상으로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그는 누군가를 대기하며 며칠째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서 있는 동안 모래의 폭풍도 그 부근까지 와서 잠들었고 대낮의 폭염이나 밤의 추위도 그를 몰려싸고 약해졌다. 마치 그가 대기할 때까지 그럴 것처럼.

바로 그런 합두의 서 있는 모습이 만화의 시야 한복판에 들어왔다. 만화가 그쪽으로 어떤 두려움이 필요한 경건성을 갖춘 채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영롱한 말이 합두의 입에서 나왔다.

만화는 그저 고개를 약간 숙여 정중히 첫 인사를 하였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말에 익숙해져서 누란의 옛 사어(死語)로 말하고 있었다.

요컨대 그들에게는 말의 장벽이 전혀 없어진 경지이므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의 말로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써온 낯익은 말처럼.

어디선가 쏘아올린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가 공중을 긋고 갔다.

두 사람은 그런 소리 따위에 주의하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만화의 합장한 두 손이 내려졌다.

그러고 보니 합두는 바람이 불면 몸매가 다 나타날 것 같은 엷은 너울 옷 위에 아주 거친 무명옷을 걸치고 있었다.

"이름과 모양이 허깨비인 진리 앞에서 당신과 내가 따로 부를 이름이 없겠으나 이런 사막에서 만났으므로 서로 이름을 지어 부르기로 합시다. 나는 만화라고 합니다."

"나는 전생다생 이래 따라다니는 이름이 몇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이름이 합두였습니다. 합두라고 불러주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막에서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기야 내가 천상에서 내려다본 사바세계의 어느 땅에서는 이 세상의 색(色)이 갖가지이지만 딱 두개의 색깔 이름 밖에 없이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검정만이 아니라 많은 색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합두도 그렇겠습니다."

"만화님!"

"합두님!"

그림 · 조향숙

새를 타고 날아 온 만화는 마침내 누란의 불탑 앞에서 합두를 만났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9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7〉

懶庵樞和尙法語
(뢰암추화상법어) ②

直須为外資薰 一生取辦
직수내외자훈 일생취판
更若悠悠過日 是誰之咎 古德 云
경약유유과일 시수지구 고덕 운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차신불향금생도 경대하생도차신
天台智者大師 云 何不絶言語 置文字
천태지자대사 운 하부절언어 치문자
破一微塵 出大千經卷
파일미진 출대천경권
一微塵者 衆生妄念也
일미진자 중생망념야
大千經卷者 衆生佛性也
대천경권자 중생불성야
衆生佛性 爲妄念所覆
중생불성 위망념소복
妄念 若破則佛性現前
망념 약파즉불성현전
此老人 爲固執文字言語者 興此歎也
차노인 위고집문자언어자 흥차탄야

모름지기 골바로 안팎으로 갈고 닦아 일생을 기울여 힘써 이룰 것이어니와
만약 다시 한가하게 세월만 보낸다면 이는 누구의 허물일까? 옛 조사가 이르되, '금생에 이 몸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 제도하랴' 하였다.
천태지자대사 이르기를 '어찌 말을 끊지 않고 문자에 걸리고
한 티끌 부셔(망념을 깨어) 대천경권을 내지 못하는가' 하였으니
한 티끌이란 중생의 망념을 말하고
대천경권이란 중생의 불성이다.
중생의 불성이 망념에 뒤덮인 바 되었으니
망념을 만약 부셔버리면 곧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노인(천태대사)이 문자언어에 굳게 집착하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 탄식한 것이다.

此亦是金鎚刮膜之義
차역시금비괄막지의
他日眼開 方知得力
타일안개 방지득력
楞嚴經 云 何賊人 假我衣服
능엄경 운 하적인 가아의복
裨販如來 造種種業
비판여래 조종종업
若不以戒攝心者 縱饒解齊佛祖
약불이계섭심자 종요해제불조
未免裨販如來 造種種業 況平平之人
미면비판여래 조종종업 황평평지인

이 또한 금비(지금의 수술칼 같은 것)로 각막을 수술하는 것과 같음이라.
다른 날 눈을 뜨게되면 바야흐로 힘을 얻은 줄 알것이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어떤 도둑놈이 나의 가사장삼을 빌려서 여래를 팔아 갖가지로 업을 짓는다' 하시니
만약 계율로써 마음을 거둬잡지 못하는 자는 비록 아는 것이 부처조사와 가즈런 할지라도
여래를 팔아 갖가지 업 짓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어늘 하물며 보통사람에 있어서랴.

"계율로써 마음을 거둬잡지 못하면 가사장삼 빌려서 여래를 파는 도둑"

참고 : 청량국사 십원
①몸은 사문의 법도를 손상치 않고 ②마음은 여래의 법제를 어기지 않고 ③앉으면 법계에 상응하고 ④성품은 경계에 물들지 않고 ⑤발은 비구니 절을 밟지 않고 ⑥거사의 침상에 눕지 않고 ⑦눈은 법도에 어긋난것을 보지 않고 ⑧혀는 고기 맛을 보지 않으며 ⑨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고 ⑩잠잘때는 의발을 잊지 않는다.

白侍郎六讚偈幷序
(백시랑육찬게병서) ①

淸涼國師 以十頌律身者 良有以也
청량국사 이십원율신자 량유이야
戒 以懺爲義
계 이신위의
又曰洗心曰齋 防慝曰戒
우왈세심왈재 방환왈계

청량국사(중국화엄종 4조)가 열가지 원으로써 자신을 늘 단속한 것은 실로 이런 까닭이었던 것이다.
계는 삼가라는 뜻이다. 또 마음닦는 것을 '재'라하고 우환 막는 것을 계라 하였다.

樂天 常有願 願以今生世俗文筆之因
낙천 상유원 원이금생세속문필지인
翫爲來世 讚佛乘轉法輪之緣也
번위내세 찬불승전법륜지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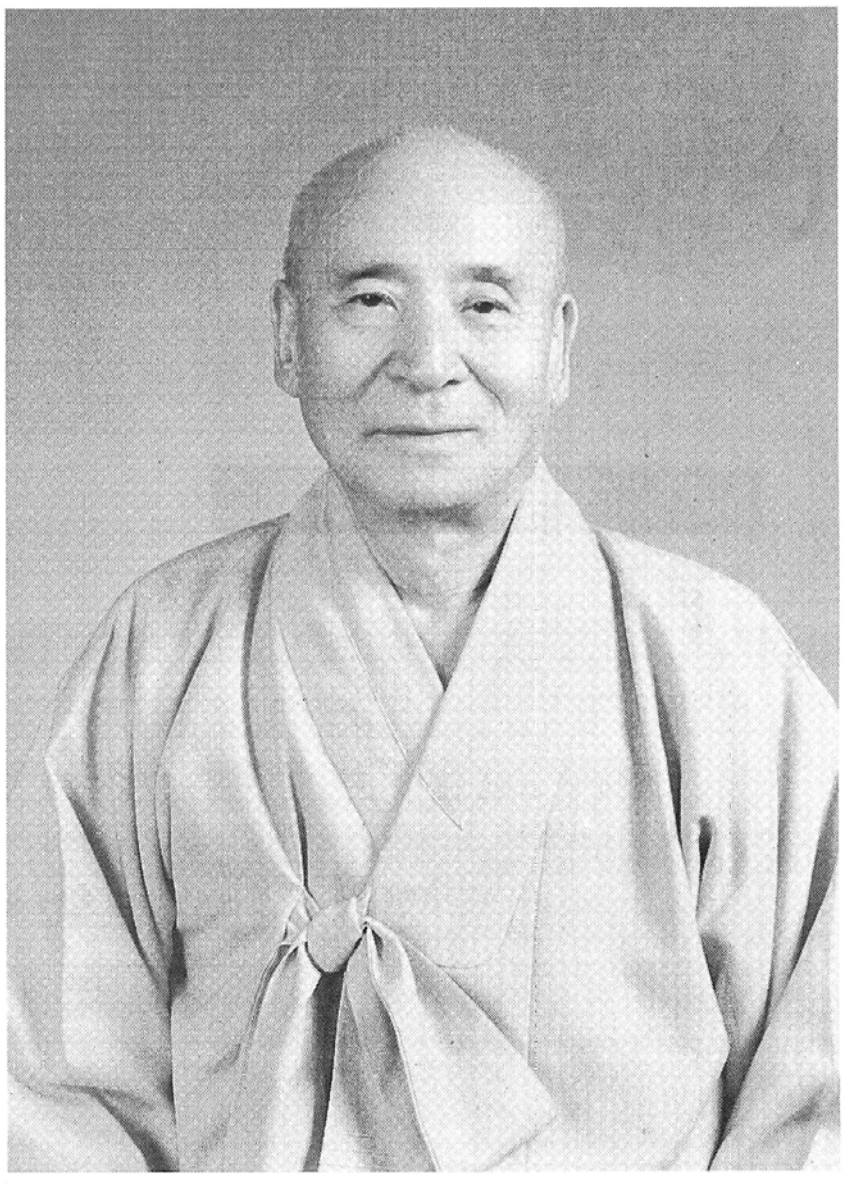
백낙천(글쓴이)이 항상 소원하되, 원컨대 금생 세속의 문필가된 인연으로써 돌이켜 내세에는 불승·전법륜을 찬탄하는 인연이 되어지이다.

龍 眼

★ 지상법석

범부중생 하루에도

설산스님 〈정토사 주지〉



약력
- 1919년 生
- 34년 금강산 건봉사로 출가
- 건봉사대교과, 오대산 청량선원, 혜화전문학교 이력마침.
- 현재 배달문화선양회 총재
- 〈명산 고찰을 찾아〉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 〈뚜껑 없는 조선역사책〉 지음.

인연으로 이뤄진 온갖 것은 꿈이요 물거품이며 그림자요
허깨비 노름이고 이슬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니
응당 이렇게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금강경〉 끝머리의 말씀으로 인연의 무상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연이 무상한 것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인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이 무상이며 왜 무상한 것인가를 차례차례 살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인연이 무상한 도리를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남이 무상한 것이라하니까 '아 무상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만다면 그 사람은 평생 과일의 껍질만 핥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 귀의한 우리는 무엇이든 그 진면목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행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법이란 열매를 맛있게 속속 먹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因)이란 우리 중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된 직접적인 원인 다시말해 내인(內因)입니다. 연(緣)은 그 반대로 외적인 원인으로 외인(外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무상함을 알기 위해서는 인과 실상 바로 알고 무엇이 무상인지 진면목을 깨달아야

렇다고해서 이 안의 원인과 밖의 원인이 확연히 구별된다거나 분별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 과일나무 하나를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인은 과일이 맺어지기 전까지의 여러 조건들인데 나무의 나이라든가 거름으로 인한 자양분의 섭취 또는 일조량과 온도의 적당량등이 모두 과일을 익게하는 요인들 아닙니까. 그것이 인 인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조건들로 열매맺은 한 알의 과일은 연인 것인데 그 과일속에는 또 씨앗이 들어 있어 미래의 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더 큰 시간개념을 가지고 보면 과일은 연이면서 인의 원인을 품고 있으니 이것이 인연과 연기의 끝없는 작용이며 이 작용의 현장이 바로 중생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연이란 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인과 연이 하나로 통하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근본사상은 모든 현상은 서로 인연이 되어 서로 의존하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한 현상적 존재 방식을 인연 또는 인과라고도 하고 연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므로 이것 또한 멸한다' 라는 것이 연기의 근본 이치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무 뿌리가 없고 햇빛이 없는데 과일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뿌리와 햇빛등의 원인들이 있으므로 과일이란 결과가 있고 또 그 과일이 있으므로 다른 나무로 새생명이 움트는 것이 서로 상의상존하는 인과의 연속입니다.

우리 범부중생은 어느때 뿌리이고 어느때 햇빛이고 또 어느때 줄기고 잎이다가 언제 열매가 되겠습니까. 열매가 되어 다시 또 어떤 나무로 싹을 틔울 건지 여러분 자신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생성과 소멸은 바로 연기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인과의 연속인 인연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연기의 법칙을 나누면 세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인과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인데 모든 존재의 생사에 대한 원인과 결과뿐 아니라 살아 있는 이 순간의 모든 것이 인이고 과인 동시에 또다시 과이며 인이되는 연속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연화합의 법칙이 있으니 이것은 인연되는 모든 존재는 따로따로의 개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과 연이 실은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지 뚝 떨어진 독립존재는 없다는 뜻이지요. 이 또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이웃이 남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언제나 보살행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을때 이 세상이 부처님 나라

1996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신입생 모 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1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6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30분	
지도법사 : 권지흥 법사·운곡스님	
한글불교의식 Ⅰ (상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하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장소
정규반 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96년 2월 5일 (월) ~ 3월 8일 (금)	매주 토요일 오후 2:30~4:30 (동산법당)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732-1206~8 / FAX : 732-1207)

6.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 (3년과정)

'96학년도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신입생 모 집

1. 불교전문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이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개강 : 1996년 3월 4일 (월), 5일(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96. 3. 4 ~ '96. 7. 29)	무량수경 (장휘옥 교수 : 전 동국대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96. 3. 5 ~ '96. 7. 30)	유마경 (박종 교수 : 한국인성개발 연구위원)

※과목별 주 1회 강의(1학기 5개월)

2. 교과목 및 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전과정 (매주 월요일)	1학기	무량수경	1학기	화엄경(십지품)	1학기	아함경 Ⅱ	• 무진장 스님(전 포교원장) • 종범 스님(승가대 교수) •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 권탄준 교수(동국대 교수) • 한정섭 박사(불교고화원장) • 박종 교수(한국인성개발연구원장) • 한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 정병조 교수(동국대 교수) • 서윤길 교수(동국대 교수) • 박용곡 스님(홍천안양사주지) • 홍윤식 교수(동국대 교수) • 정휘옥 교수(동국대 교수)
	2학기	여래장사상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금강경	
응용과정 (매주 화요일)	1학기	유마경	1학기	불교미술	1학기	불교의식 Ⅰ	
	2학기	구사, 유식	2학기	비교종교론	2학기	포교당경영론	

※과목별 주 1회 강의(1학기 5개월)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접수	전 형 방 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6년 2월 3일 ~ 3월 2일 (토)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 가능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문의전화 : 732-1206 ~ 8, 722-0408 / FAX : 732-1207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지상법석 ★

수천번씩 생사 윤회

"뿌리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생명은 상의 상존 인과의 연속입니다"

'인과법 얽매이지 않겠다' 원력으로 정진 거듭해야
'이웃은 나와 한몸' 알게되면 보살행 저절로 하게돼

"부처님은 '인과 늪' 벗어나 진리터득하고자 왕자자리도 버리고 수행하셨습니다"

가 된다는 말을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상의상존(相依相存)의 법칙입니다. 이 역시 방금 말한 두번째 법칙과 별 차이는 없지만 서로 의지함이 없으면 존재조차 없다는 절대절명의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햇빛과 물이 없으면 새싹이 안나오는 것이지만 새싹이란 존재없이 햇빛과 물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 사바중생계의 현실인 겁니다.

범부중생은 인과의 실재 속에 얽매여 끌려 다니기 때문에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연자방아가 도는 것처럼 생사고해에서 헤엄을 치면서 하루밤 하루낮에도 수천번을 나고 죽고 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온갖 중생은 번뇌로 지어진 업에 의해 그 육신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제몸과 사는 세계와 온갖 일들이 업(業)을 제쳐 놓고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업이 인이되어 그 과보로써 연이 일어난다는 이치인데 중생은 중생의 탈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스스로의 업 자체가 자신의 모습과 살아가는 터전을 결정짓는 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과 법칙에 얽매인 사람은 무량세상을 나고 죽는 깊은 늪에서 헤맬 것이며 선과 악의 업 때문에 인과응보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는 중생인 것입니다.

인과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마저 헌 신발처럼 버리고 출가수행을 하신 동기이자 원력입니다. 우리도 이 늪을 벗어나 일체법계의 진리를 체득하고자하는 큰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원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무슨 깨달음의 소식이 있겠습니까. 인과에서 벗어나고 인연의 늪을 빠져나가는 길을 저 유명한 백장(百丈)스님의 회상(會相)에서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떨어집니까"라고 옛날의 학인이 했던대로 물었습니다.

백장스님은 취모검의 칼날 같은 섬광이 번뜩이는 목소리로 "불매인과(不昧因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 한마디 아래 크게 깨쳐 스님에게 절을 하고 "저는 이미 야호의 껍데기를 벗어났습니다. 시체는 뒷산 바위 아래 있습니다"라더니 사라졌습니다. 백장스님은 부전을 불러서 "점심공양 후에 죽은 스님의 장례가 있으니 준비하라"고 일러 놓고 대중을 이끌고 뒷산에 가서 죽은 야호의 시체를 수습해 다 대중들의 독경속에서 성대히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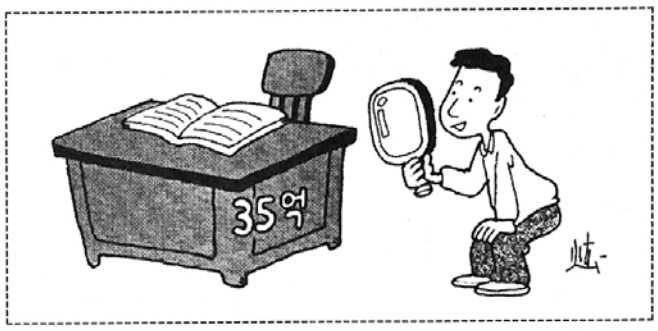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인연의 굴레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곰추세워 들어야 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들어 보세요.

그날 밤 백장스님은 법당에 대중들을 불러 놓고 그 노인의 ㅇ야기며 낮의 장례에 대한 사연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모든 대중이 경의의 눈빛으로 스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데 제자 황벽(黃蘗)이 약간 흥분된 어조로 묻기를 "옛날 어른이 한마디의 대답을 그르쳤기 때문에 오백생이나 야호의몸을 받았다고 했는데 만약 일언일구에 조금도 틀림 없는 대답을 하였다면 그때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백장스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듯 "어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가르쳐 줄테니"라며 황벽스님을 불렀습니다. 스승에게 제자가 다가서더니 스승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자 황벽이 손을 들어 스승 백장의 따귀를 후려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뺨을 맞은 스승은 화를 내기는 커녕 손뼉을 치며 웃더니 "오랑캐의 수염은 붉다더니 여기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불락인과'나 '불매인과'의 도리를 수백명 대중가운데 오직 황벽만이 알아 들었던 것입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금비라화 가지를 들어 보이신 뜻을 오직 가섭만이 알고 빙긋이 웃었듯이 말입니다. 백장이 뺨을 맞고 황벽이 때린 것, 이것은 이미 천지일체의 진리를 뛰어 넘은 곳에서의 행동인 것입니다. '불락'에 야호가 되고 '불매'에 야호를 벗어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그래서 황벽은 스승이 입으로 말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란 뜻으로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경지에서 스승의 뺨을 후려 쳤던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백장도 입을 열어 그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입을 여는 그 순간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태동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연의 초월일 수 없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량분별을 하면 천리만리로 떨어지는 것이고 한시도 쉼없이 불락불매하면 기연이 닿아서 일체만물이 한덩어리임을 알게 되고 그때에 이르면 나도 없고 야호도 없을뿐 아니라 뺨을 때리는 손도 맞는 뺨도 없어 삼라만상과 무위묘법이 다 자기것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과의 실상을 바로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한시도 번뇌의 늪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금강경〉의 말씀은 범부중생이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지어내는 일체의 인연이 허상임을 강조 한 것이라면 뒤에 들려드린 백장회상(百丈會相)의 이야기는 인연의 도리를 알음알이로는 알고 있으되 그것을 잘못 행하면 그 역시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치는 일화입니다. 인과를 바로 아는 것은 어떻게하면 과일나무가 병들지 않고 잘 자라 실한 과일을 영글게 하고 또 그 과일속의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게 하느냐를 아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는 한그루의 과일 나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되어 인연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밝혀 드려야 겠는데 이 산승이 입을 열어 인과의 도리를 이야기하기전 산승의 따귀를 때려 줄 불자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8

양 형 진

아뢰야식

무량겁동안 축적된 경험 마음깊이 저장
모든 존재는 무한한 과거의 끝없는 인연

우리는 눈과 귀, 코, 혀, 피부로 객관세계를 감지하며 살아간다.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흔히 오관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 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객관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을 각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 하며 이를 총칭하여 전오식(前五識)이라고 한다. 이 전오식은 모두 사물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전오식에 의식을 더하여 육식이라 하는 데, 여기서의 의식은 전오식의 지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각 작용은 물론 추상적인 사유나 지성, 감정, 의지, 상상력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유식불교에서는 이 육식만으로 인간을 파악할 수 없다고 믿어 마음의 심층을 탐구해 나간다. 제6식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잠재적인 자아의식과 비슷한 마음을 제7 말라식이라고 한다. 이는 자기애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기성이나 나에 대한 집착과 같은 마음이다.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 등 뒤에서 떨어지는 바위를 피하는 것과 같은 것은 이 말라식의 발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애는 생명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종족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장치로서,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자와 같은 생명체의 내부에 각인된 맹목적인 생의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전오식과 의식, 말라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마음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 푸르게 돋아나는 풀을 보고 느끼는 환희,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동경, 타오르는 불을 보고 느끼는 감정, 파충류를 보았을 때의 몸서리쳐짐등은 그 근원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한 감정은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에서의 경험이나 그로 인한 잠재 의식등 어떠한 의식의 편린으로도 포착되지 않으며 또한 제7식과 연관되는 자기애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불교심리학에서의 독특하고 또한 탁월한 부분은 말라식보다 더 깊은 심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매우 깊고 미세한 인간의 마음인 제8 아뢰야식을 상정함으로써 이상의 예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아뢰야식이란 무시 이래 우리 인간에게 축적된 경험의 전체이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35억년전 이 지구 상에 생명체가 태어난 이후, 무수한 생명체가 겪었던 일체의 경험이 마음 깊숙이 감추어져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뢰야식이다. 그래서 장식(藏識)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경험이 축적되어 가는 것을 훈습(熏習)이라고 하며, 훈습되는 경험을 종자라 하기 때문에 또한 종자식(種子識)이라고도 한다.

종자식은 의식의 전면에 부상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과거의 경험으로서 저장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를 있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예로 든 의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은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되는 아뢰야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현재의 경험은 또한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미래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을 쓴 것은 아뢰야식에 의하여 말라식이 지탱되고, 말라식에 의하여 의식이 지탱되며, 의식에 의하여 지각 작용이 지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순간에서의 사건이 아니다. 그저 눈으로 봄으로써 안식이 생긴다는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 대단히 단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35억년 생명체의 전역사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책상이라는 대상은 그 자체로 책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책상이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과거와의 끝없는 인연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무량원겁의 전역사가 안식이라는 한 생각에 녹아드는 사건이라 하겠다. (無量遠劫卽一念)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무아, 무상의 실상을 보게 된다.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무량겁 동안 쌓인 여러 가지 인연의 맺어짐인 8식으로 살 뿐이니 인무아(人無我)요, 또한 식에 바탕하여 사물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이 역시 인연의 맺어짐일 뿐이니 법무아(法無我)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 · 정진 · 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6년 3월 1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教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피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업과 문화, 폐사지를 찾아서 · ·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어머니…
우리 前生은 무엇이었습니까?
춘하추동 4계절 "몽고", "호주"를 오가며
마침내 완성한 한국고집의 승리!
그들은 사랑을「카루나」라 부른다
카루나
감독 이일목
옥소리, 김청, 김정훈, 조재현, 최종원, 남능미, 이진수, 강민경, 박준규, 이성웅, 서우림, 박용식, 김주영, 한영숙 특별출연 : 설봉(스님), 김영희, 권병길
제작 이정의 기획 김동흔, 곽현석 각본 이일목, 박철민 촬영 전조명 조명 김태성 편집 현동춘 음악 이철혁 미술 조용삼 특수효과 김철석, 김태용 소품 이태우 메이크업 송일근 의상 이해은
미용 이유리 스틸 최승화 동시녹음 안상호 녹음 강대성, Audio Loc Sound Design 효과 양대호 ENG 아주영상 고증 설봉스님 조감독 임춘택 제작부장 김창환 제작실장 반인섭 홍보 광고기획 에드시네마
(株)일목필름 창립작품
Gtv GTV 케이블 네트워크 채널35
DOLBY STEREO
전국
3월 대개봉
광주 신동아 222-0006
대구 아세아 254-7833
부산 국도 245-5441
서울 연흥 678-1014
서울 스카라 266-6333 · 6303
진주/통영 마산/강남 울산/울산 포항/중앙 경주/신라 김천/아카데미
구미/코스모스 안동/진성 청주/중앙 천안/시네마타운 충주/아카데미
전주/대한 군산/국도 여수/중앙 순천/국도 목포/남일 이리/코리아
제주/코리아 L·A한국일보 문화회관

"불교 세시풍속으로 알찬 설맞이"

"법고·성불도·점찰 놀이로 가족화목·가르침 다지는 시간을"

새해아침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유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불교놀이와 세시풍속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성불도 윷놀이와 흡사한 성불도 놀이는 육방에 '나무아미타불'이 씌어진 주사위를 던져 나온 괘에 따라 놀이판에 말을 놓아 대각(부처님)에 도달할 때까지 두는 놀이다. 육각 나무윷을 던지기 전에 합장하고 경견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른 뒤 던지면 육면에 적혀 있는 숫자대로 자기의 위치를 진행한다. 한사람이 윷을 던질 때마다 나머지 사람도 같이 염불한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잡담 및 속임수를 쓰면 '전다라' '맹농아' 등으로 떨어져 최고의 목표인 '대각'과는 멀어지게 된다. 이 성불도 놀이는 고려시대부터 유행한 놀이를 서산대사가 다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점찰재 불교의 참회방법을 수록한 경전인〈점찰경〉을 토대로 '6개짜리나 3개짜리' 주사위 모양의 목륜상(木輪相)을 이용해 이 목륜상을 따라 참회하고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놀이다. 이 놀이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어떤 선행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윷과 같은 기구를 사용한다. 목륜상을 던져 나타나는 표시를 보고 선과 악에 따라 참회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이 말세가 되어 불법을 따르는 사람이 적고 온갖 악법이 난무할 때 과거의 선악업보와 현재의 길흉화복에 따라 수행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고 불교와 관련된 세시풍속으로 법고를 빼놓을 수 없다. 평소 산사에서 수행정진하던 스님들이 새해아침 저자거리로 내려와 법고를 치며 집집을 돌며 염불하고 권선한다. 이때 스님들이 만들어 온 떡 한개와 속인들의 떡 두개를 맞바꾼다.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일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승병(僧餠)이다.

이밖에도 정초의 민속으로 스님들이 마을 굿의 제관으로 참여해 마을과 절의 길운이 깃들이기를 기원했으며, 절 입구의 서낭이나 장승 앞에서 성황제를 지내 질병을 막고 절의 융성과 화합을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전통 세시풍속들은 오늘날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민족전통문화 전승에 불교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중근 기자



◇설날 온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하는 성불도 놀이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온 불교세시풍속의 하나다.



◇ 천년만에 다시만난 연인 미단공주(진희경 분)와 수현(한석규 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은행나무 침대.

BBS btn 설날특집 프로 '다채'

특별법문·만화영화·해외포교등 다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불교방송과 불교TV가 불자들의 새해 맞이를 위한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마련했다.

불자들의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보는 이번 특집프로그램에는 스님과 사회 유명인사의 새해 전망과, 덕담과 알뜰한 한해를 위한 각종 정보도 소개된다.

BBS ▲설날특별법문 큰스님께 듣는다(19일 오전8시20분)=새해아침 불자들이 지녀야 할 참지혜의 말씀을 대덕 큰 스님께 들어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19일 오전10시5분)=설날의 의미를 새겨보고 잊혀진 고유민속놀이를 즐겨보는 한마당 잔치.

▲부처님과 함께(20일 8시20분)=새해 불교계의 움직임과 불자들의 각오, 새해 불교의 중점 과제 해외포교활동 등을 알아본다.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20일 10시5분)=명사, 일반일들과 함께하는 설날이야기 및 덕담을 들어보는 시간.

▲설날특집 9시간 음악 생방송(19, 20일 12시10분~20시55분)=전통가요, 가곡, 국악, 최신가요, 팝송등 각 장르별 음악을 소개, 아름다운 설날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BTN ▲설날 세배드립니다(19일 10시)=민속학자 심우성, 아나운서 이계진, 탤런트 김성녀, 개그맨 김종국 등이 출연, 시청자들에게 덕담과 세배를 올린다.

▲특선 다큐멘터리 중국무술의 고향 소림사(19일 12시20분)=중국무술의 본산인 소림사 스님들의 정신과 육체수양을 알아보는 시간.

▲만화영화 동자승(19일 오후1시40분)=동자승 혜원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를 담은 설날 특선 만화.

▲신년에세이 산중편지(20일 오전11시)=산사에서 수행중인 스님들의 신년메세지. 여연스님의 세분이 출연한다.

▲특선 다큐멘터리 승산의 구도자들(20일 오후2시20분)=고대에서 현재까지 구도자들의 수행장소로 전해지고 있는 중국 숭산을 찾아가 본다.

설날 볼만한 불교소재 영화

설날 극장가에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윤회를 소재로한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은행나무침대(감독 강제규)〉가 2월 17일 명보극장에서 개봉 됐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네 남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린 이 영화는 천년이라는 시공간을 두고 펼쳐지는 환상적이고도 애절한 러브 환타지.

지난 10일부터 동숭씨네마텍에서 상영중인 영화 〈노스텔지어(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향수가 인간영혼의 본원적이고 정신적인 이상향에 대한 향수로 자연스럽게 전이되는 과정을 처절하리만큼 아름다운 영상으로 그려낸 순수예술영화.

한편 청자도예공의 아들 종길과 순임의 질곡을 삶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통일염원을 그린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등 대도시 순회시사회를 열고 있다.

카루나는 오는 3월9일 서울 스카라극장을 비롯 전국 17개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황폐해져가는 인간세상의 부조리함과 불균형한 구조를 근원적인 질문과, 인간적 시각, 종교적 관점을 빌어 탐색해가는 영화 〈유키(감독 양윤호)〉가 오는 3월 개봉을 앞둬 관객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카 루 나 서울·부산등 대도시순회 시사회

노 스 텔 지 어 천년시공 초월한 사랑이야기

은행나무 침대 정신적 이상향 찾는 과정 그려

'고향가는길 카풀 이용'

설 연휴에 대비해 카풀운동 단체들은 귀향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풀프로그램을 편다.

이 프로그램 이용은 ▲사랑의 차 함께타기 운동본부(02-922-9700)▲교통방송(02-724-7123)▲서울시 사회진흥과(02-731-6636)에서 무료로 한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더러움의 장 *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이 향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득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인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특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정신·육체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물체의 속성이 근접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체질에 적응 기아·금욕강의 없다
• 호흡, 체육처, 일본·지련당·식물심단백질 심취
• 수련내용 일월심태수련·선근심태수련 연단수련
• 신근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심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호 엘리트이더틱 호르몬연구소 성고) 청소년들의 심정함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보시 용현면 와동산 등남선원
안내 ☎ (0593)34-1115-6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입구정역 543-7306

사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본인은(49세, 女) 가족이 없는 혼자 몸으로 사찰에서 스님을 모시고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 (서울) 914-920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군 승 단
육·해·공군 군승단에서는 군포교를 함께 할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명
자 격 대졸이상 남자로서 군종병 출신이거나 신심있는 불자로서 PC가능자
보 수 교계보수수준
문의 및 연락 군승단 사무실 (748-1728, 749-8646)

찾·습·니·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성별 : 남
■ 연령 : 만 18세~25세(군필 또는 면제자)
■ 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분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시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탁자, 담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북장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탑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룡사):대웅전 문짝 탑집
• 충무(심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탑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탑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방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수)「비디오강정교사」 특별제공 (1천만도움)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대한교육평가원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함박첨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지방불교문화 발전 기여"

설날맞아 살펴본 향토 문화서

문화유적 총람·민속 구비문학 연구서등 내용 다양

매년 40여종 발간… 목록작업으로 활용가치 높여야

우리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의 역사와 문화재가 어떠한지 제대로 살필 기회가 많지 않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설날에 즈음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명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어, 향토사와 지방문화재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백제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재를 다룬 〈백제의 숨결〉(한국관광공사 刊) 〈한국의 폐사〉(한국문화사 刊) 〈충남지역문화유적 9집〉(백제문화개발연구원 刊) 〈백제역사〉(충남도 刊)를 비롯, 〈갑천의 문화유산〉(대전 서구문화원 刊) 〈천안문화재도록〉(천안문화원 刊) 〈고인쇄문화 2집〉(청주고인쇄박물관 刊) 〈문화의 고장 부여〉(부여교육청 刊) 등이 그것이다.

지역 문화원과 자치단체, 지역박물관, 향토사가 등에 의해 발간되고 있는 이같은 향토사·향토문화연구서들은 지난해 6월 지자제 선거로 본격화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향토사와 지방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지역불교사와 불교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움직임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불교사료와 유적·유물 등의 발굴 보존 및 관리의 활성화와 지방불교문화에 대한 관심고조 등 불교문화의 지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7년 정부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보조 시작과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 김택규 영남대명예교수) 결성으로 향토사 연구붐이 조성되면서 발행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이같은 도서들은 매년 35~45종이 발간되고 있다.

지난 62년 발족한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홍)에 납본된 95년 향토사·문화재관련 도서들은 모두 42종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문화유적총람등 문화재관련 도서가 15종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시·군·읍·면지(誌)등 향토지가 9종 △민요·민담·설화등 구비문학연구서가 5종 △민속연구서가 4종 △지명지(地名誌)가 3종 △향토사논총이 2종 △기타 4종 등이다. 특히 문화재 총람 및 편람, 금석문·고문서 목록집 등 문화재관련 도서가 전체 발행도서의 약 36%로 나타나 지역문화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같은 향토문화연구붐에도 불구하고 도서목록집의 부재등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도서가 비매품인데다 한정된 수량으로 발간되다 보니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납본되는 책이 적고, 이로 인해 불교학·미술사학자 등 불교계 및 관련학계가 활용할 길이 막혀있다는 사실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유장수 편집주간은 "조만간 향토사관련 서적의 목록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늦게나마 활용의 길이 열리겠지만, 관련학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이들의 연구열을 높이고 유관(有關)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 지방화시대를 맞아 향토사·문화재 관련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수량과 비매품으로 발간돼 널리 보급이 안되는 점이 아쉽다.

새로나온 책










▲연선도인 1, 2(백운스님 지음)=서산대사의 스승인 한국 조계종의 6조 부용당(芙蓉堂) 영관선사(靈觀禪師)가 천민으로 태어나 견성오도하기까지의 생애 중, 행오선사에 의지하여 출가한 뒤 당대의 여러 선지식을 제접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1, 2권의 소설에 담았다.〈우리출판, 각권5천원〉

▲돈황의 불빛 1, 2, 3(황인경 지음)=혜초스님과 고선지 장군, 백제유민 부용이 펼치는 꿈과 야망,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한 줄기를 되돌아 본다. 〈소설 목민심서〉의 작가 황인경이 4년만에 내놓은 장편역사소설.

〈삼진기획, 각권 6천5백원〉

▲신라수공업사(박남수 지음)=신라 수공업의 실태를 관영·궁중·사원 수공업 등으로 세분해 논증하고,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확립과 수공업의 분화과정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했다.

〈신서원, 1만2천원〉

▲철불(최성은·한석홍 지음)=철불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에 이르는 시기에 크게 유행한 점에 비추어 전환기 미술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 제178권.

〈대원사, 3천5백원〉

▲천년의 세월을 엮는 사람들(이윤수 지음)=전통을 잇는 34인 장인들의 삶을 그렸다.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불일회보〉에 연재했던 '불교문화의 향기 찾기' 취재기.

〈한뜻, 6천원〉

▲지혜의 바다(임종삼 편저)=지혜(般若)는 노·병·사(老病死)의 바다를 건너는 굳건한 배요, 무명을 비추는 큰 등불이요, 번뇌의 나무를 치는 날랜 도끼다. 현대인을 위한 반야심경 에세이.

〈문학풍경, 6천원〉

▲21세기 과학의 포커스(고건 外 20명)=서울대교수 20인이 말하는 21세기 과학의 쟁점들.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 〈사계절, 8천5백원〉

▲인도로 간 처녀(김수연 지음)=저자가 관광에서 시작해 인도의 성자들을 만나면서부터 깊어가는 '나를 찾는 여행'기. 〈차림, 6천5백원〉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 쓴 윤주억 교수

"불교 문명한계 극복 열쇠"

불교사상과 현대과학 유사성 입증



"불교철학은 자연철학 위에 치밀한 논리로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과학시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교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지요."

반평생을 실험실에서 보낸 생화학자 윤주억 교수(64·동국대 식품공학과)는 30여년간의 불교공부를 토대로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밀알 펴냄)를 펴내면서 "자신의 생명과학 연구의 기초가 된 자연관은 불교였다"고 말한다.

"40년에 가까운 연구활동과 불교공부를 접목하기 위해 책을 내게 됐다"는 윤교수는 불교가 과학시대에 던지는 의미를 '타리즉자리(他利卽自利: 남의 이익이 곧 자기의 이익)'라고 규정한다. 환경파괴·자원고갈·국제분쟁 등 과학문명의 한계를 극복해 줄 길잡이로 불교사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교수가 불교를 '과학시대의 종교'로 보는 이유는 △유식(唯識)과 신경생리학상의 인식구조 △현대물리학상의 최소물질단위인 '쿼크'와 불교의 '극미(極微)' △불교 인식론과 컴퓨터 논리회로등 불교와 현대과학 이론과의 유사성이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서의 기복불교도 그 나름의 존재이유를 갖는다"는 윤교수는 앞으로 쉽고 재미있는 불교 안내서를 집필할 예정이다. 〈재〉

'아비담팔건도론' 발간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새한글대장경 〈아비담팔건도론〉과 〈대방광십륜경 外〉를 발간했다.

〈아비담팔건도론〉은 〈아비달마발지론〉의 다른 번역으로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부학설 전반을 조직적으로 논술하고 있기 때문에 〈발지신론(發智身論)〉이라 불리며 옛부터 이 부파의 대표적인 논서로 존중돼 왔다. 〈대방광십륜경 외〉에는 〈대방광십륜경〉 〈보살지지경〉 〈무진의보살경〉 등 16경이 번역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 청	등 지
3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4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 영 한	전원문화사
5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7	버리고 떠나기	법 정	샘 터
8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9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10	금강경 이야기	법 륜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신역 화엄경'



김 규 동 〈시인〉

삼라만상의 상의상존 일깨워

피안을 바라보는 마음 열어줘

최호씨가 역해한 〈신역 〈화엄경〉〉(홍신문화사 刊)은 장엄함 〈화엄경〉의 세계를 규모있게 축소시켜 전체의 흐름을 역사적인 위치에서 가늠하게 한다.

5년전에 읽은 이 책은 불교공부와 문학공부를 겸하기 위해 선택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문학적인 성격을 넘어 〈화엄경〉의 심오한 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었다. 역자는 역사성과 스토리를 지닌 〈화엄경〉의 구도정신을 불교의 핵심으로 파악해 다양한 고증과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학성을 지닌 시(詩)적 공간을 쉽고도 아름다운 언어로 열어제끼고 있다.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화엄경〉은 옛부터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도 이 경의 법문(法文)을 듣고 모두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할 정도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전한 것이기에 한량없는 광명과 가이없는 환희를 간직한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 하면 그 표현이 다분히 상징적이어서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비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이처럼 난해한 경을 쉽게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이하고 있는 이책은 〈화엄경〉의 세계를 두려움 없이 접하려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화엄경〉 속에 펼쳐져 있는 세계관은 현상세계가 상호교섭하여 무한한 상호 연대관계를 갖는다는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진리를 근본바탕으로 할 때 삼라만상의 모든 사상(事象)은 서로 연관되어 걸림이 없고 부딪침이 없다.

이같은 〈화엄경〉의 심오한 사상은 차안(此岸)을 넘어 피안(彼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일깨우고 천성을 계발하는 자유로운 상상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인생의 경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화엄경〉이 주는 메시지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영겁(永劫)을 초조함 없이 바라보는 시야를 길러줌으로써 마음의 위안과 인생을 정리하는 여유를 준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기에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롭기에 삶이 허허롭지 않다. 깊이있는 삶은 세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초목속에는 온 세상이 반영되어 있고, 한 순간 한 찰나에도 영원(永遠)이 깃들어 있다는 〈화엄경〉의 주장은 시공(時空)의 한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광대한 법문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고립적이고 독존적인 존재란 하나도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곧 일체요, 일체는 곧 하나라는 역설적인 주장이 〈화엄경〉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해 구도자 즉, 보살의 수행도(修行道)를 자세히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은 불교의 깊이와 향기를 가까이서 느끼게 하는 훌륭한 입문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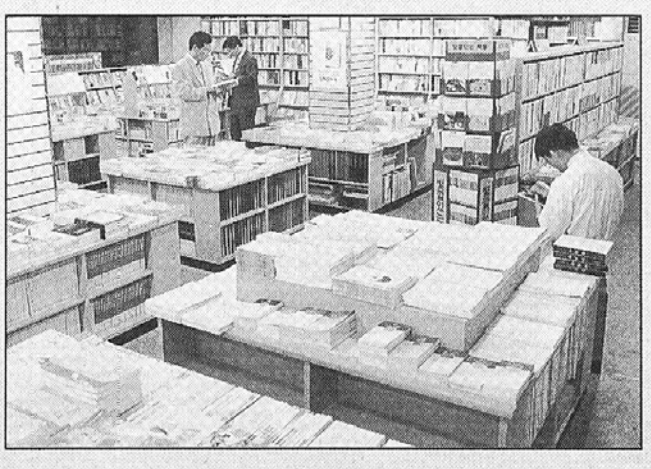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를 산다(?), 책방 여시아문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선물코너'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고른 한 권의 불서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또는 벗들에게 한 해 동안의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에쁘게 포장해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랩' 선호 청소년 취향 신세대 찬불가 만든다

불교음악연구회 기존작품 편곡등 가을발표준비 한창
불교교육연구원 창작동요·어린이합창곡집 발간예정

"빠른 '랩'을 좋아하고 컴퓨터 세대인 요즘 어린이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재미있는 찬불가를 만들겠다."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 중앙대교수)와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이 각각 어린 부처님들을 위한 새 찬불가집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음악연구회는 오는 가을 새 어린이찬불가를 내놓기 위해 현재 가사를 모집중이다. 내용이 좋은 불교적인 소재의 가사가 들어오는대로 정부기교수를 비롯 음악연구회 회원들인 이진구 현연주 박이제 김회경씨 등이 곡을 붙여 새 곡을 만들고 이를 시연하는 창작발표회도 갖는다는 계획.

정부기회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여섯살부터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를 배우기 때문에 음악에 있어 문외한이 드물므로 단조로운 음률의 곡은 도외시당한다"며 "요즘 어린이들을 위한 수준높은 새 찬불동요를 만들겠다"고 밝힌다.

연구회는 기존에 나와있는 곡중 널리 불리는 유명 찬불동요들도 편곡을 새로 해 반주곡을 붙여 새 동요집에 같이 묶을 예정이다.

황학현원장은 "어린이찬불가는 어린이 마음의 표현이기에 그들의 밝고 발랄한 마음처럼 가사와 곡이 조화를 이룬 발랄하고 경쾌한 어린이찬불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한다.

연구원의 어린이찬불가 창작에는 황학현원장 외에 유익상 이종만 민선희 차은선씨 등이 참여한다.

현재 나와있는 어린이찬불가는 4백여곡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불려지고 있는 곡은 30곡이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질 높은 찬불가의 창작뿐 아니라 이를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보급 방법 모색과 아울러 찬불가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올해 유난히 새 어린이찬불가가 풍성히 쏟아질 것을 기대할 때 법회등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가요보다 찬불동요를 선택할 날도 멀지 않은듯 싶다.

이경숙 기자

문인대표 1백명 독도 3·1절 세미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간에 첨예한 외교분쟁이 일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 문인 1백명이 3·1절 기념행사를 독도에서 가질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체부와 '96 문학의 해 조직위는 '문학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3월1일 독도에서 '국가와 문학'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는다.

東大서 만해백일장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3월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문학의 해 기념 제17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참가 접수마감 28일까지. (02)738-3386~7

불심시심 〈44〉

나눠가진 봄

洞裡花紅紅射日 (동리화홍홍사일) 동구안 꽃붉어 해로 쏘는 붉은 빛
嶺頭松碧碧凌空 (영두송벽벽릉공) 고개마루 푸른 솔 하늘 찌른 푸르름
一般春色分爲二 (일반춘색분위이) 똑같은 봄빛인데 둘로 갈라서
半入花林半入松 (반입화림반입송) 반은 꽃숲에 주고 반은 솔숲에 숨겼다

지리산금류동우음(智異山金流洞偶吟)이라 제한 침굉대사의 시이다. 지리산의 금류동을 지나다 우연히 읊는다는 것이다. 지난주의 시에서도 말했듯이 침굉대사의 시는 그저 이야기하듯이 흘러내려 꾸밈이 없다. 이 시도 봄의 한 순간을 이야기하듯 하였지만 봄의 특징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또한 일상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보는 선사의 자연일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선택할 때도 두루 고르기보다 책을 펼치자마자 그저 시선이 멎었고 그저 호감이 가기에 선택하였다. 대사의 작시 의도도 이렇듯 그저 이것이 봄이야 하는 담박한 시상이 아니었을까.

봄이 되어 꽃이 피었고 꽃이 있어 해는 더욱 밝다. 밝은 것이 아니라 꽃이 쏘아올리는 빛에 의해서 밝아졌다. 하늘이야 항시 푸른 것이기는 하지만 봄되어 더 푸르러진 저 숲 빛이 있기에 더더욱 푸른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대경의 모든 사물은 서로 맞서면서도 서로 맞물리는(相卽相入) 진리의 세계가 아닐까. 이 상즉상입한 자연의 실상에서 붉음 푸르름으로 대변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봄이 아닌가.

이렇듯 봄이라는 한 상황으로 포용되면서 두 개의 한 계적 빛으로 대별되어 하나는 꽃봉오리로 하나는 소나무가지로 나뉘어 갖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다음의 구로 이어 같은 봅 빛을 둘로 나누어 반은 꽃숲이 반은 소나무에 들었다 하였다. 이것을 진리의 현상으로 바꾸어 말할 때 진리는 하나이되 상황에 따라 길을 달리한다 할 수 있으리라. 당시의 사회상과 대사의 처지로 이해한다면 유석불이의 융화를 은연중에 강조하였다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 시는 봄 경치를 한 말로 대변할 수 있는 시로서 그 탁월한 수사성에도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조계종 '불교음악 발전방안' 간담회

모방여부·가사등 심의 절실
총무원 합동찬불가집 발간 늦어질듯

불교음악의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시현)가 주관한 '불교음악발전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개최됐다.

작곡가, 각 사찰 합창단 지휘자·단장 등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적인 불교음악발전의 발판마련을 위해서는 작사 작곡 편곡 행사 등의 분야별 분과위를 만들어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또한 찬불가등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품의 질, 찬송가 및 외국곡과의 모방여부, 가사의 적법성, 곡의 순수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 구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자·합창단 대표등과 종단 실무자가 참여하는 음악포럼의 정기화와 찬불가를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보급방법 모색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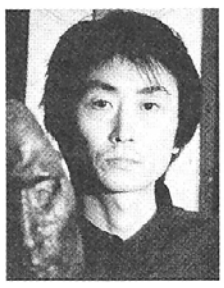
한편 이날 참가한 참석자 대부분은 총무원 주최로 오는 3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합동찬불가집 발간기념음악회 행사일정이 너무 촉박해 자칫 졸속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참석자 일부는 "총무원에서 만들려는 대중을 합동찬불가집이 교계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문사부는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찬불가집 간행위원회를 곧 구성해 선곡할 것"이라고 말해 합동찬불가집이 3월 17일까지 발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숙〉



◇모처럼 열린 '불교음악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에는 작곡가·지휘자 등 음악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하는등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미술평론가협 미술상 받은 류인씨
"흙·나무등 자연소재로 인간본성 표현 노력"



"흙과 나무를 만지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생각했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견조각가 류인씨(41)가 이달말까지 아트 스페이스 서울갤러리에서 수상기념전을 갖고 있다.

작품의 일관된 주제 대상으로 인체를 택하고 있는 류씨는 청동으로 만든 팔이나 얼굴 등 몸의 한 부분과 자연상태 그대로의 나무와 흙으로 결합한 작품들을, 대담하게 생략되고 잘라낸 구성을 통해 정열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특성을 여실히 내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제1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 수상경력이 다채로운 그는 지난 87년 수행을 향한 인간의 의지와 비장함까지 표현한 연작 '입산(入山)'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다.

"부조리와 인스턴트 문화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류인씨는 작고한 원로 서양화가 류경채씨의 아들이다.

문화재 소식

도난성보 대부분 탱화등 그림류
85건 1백88점 사찰문화재 유실

최근 6년 성보도난

불교문화재 도난이 가장 빈발한 곳은 경북이며 탱화등 그림류가 가장 많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과 문화재관리국이 지난 90년~95년 전국 사찰에서 발생한 성보도난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난당한 송광사 16고려국사영정을 비롯해 6년동안 모두 85건의 도난사건이 발생, 총 1백88점의 사찰문화재가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지난 94년 8월과 10월 잇따라 발생한 김용사와 고운사의 탱화도난 등 23건으로 가장 많아 이 지역 사찰문화재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남(18건) 부산·경남(16건) 전북(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사찰문화재 종류별로는 탱화등 그림류가 1백42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상류 19점, 전적류 10점, 불구류 8점, 범종 4점, 석조 및 기타 5점 등으로 나타났다.

영국사 대웅전 보수

지방 유형문화재인 충북 영동 영국사(주지 성각)가 지난해 담장에 이어 올해 대웅전 보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동군은 올해 문화재보수 예산안을 확정하고 영국사 대웅전과 난계사 담장 보수에 1억6천여만원을 투입,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영국사 대웅전은 단청과 마루가 심하게 헐어 보수가 불가피한 상태다.

국보 반가사유상등 해외나들이
국립박물관 올 사업…9월 사찰종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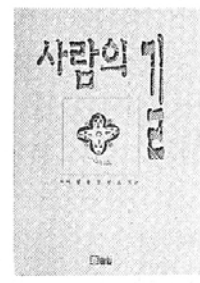
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을 비롯한 국립박물관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국책사업 추진 △유물의 과학적 관리 및 발굴·학술조사 △세계화 정착을 위한 문화재 국내외 전시 △사회교육기능 강화 △지방박물관 건립 등 크게 다섯가지.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최대 국책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을 정하고 건립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건립 및 구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키로 했다.

또 중앙박물관은 하반기에 고려·조선시대 향완 정병 등 불교공예품을 모은 '불교공예전' 등의 국내전시회 및 96년 애틀란타올림픽기념 미술전시회에서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전시와 9월경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등 13점의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박물관 전시등 해외전시 및 문화교류안도 마련했다.

유물 발굴 및 학술조사로는 중앙박물관의 사찰종합조사(9-10월)와 경주박물관의 불교유적조사(11월)등 모두 15건이 확정됐다.



인도등 7년 구도여행 소설화
향봉스님 '사람의 길' 펴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향봉스님이 7년동안의 인도와 네팔, 중국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경험담을 소설화한 장편소설 〈사람의 길〉(밀알刊)을 펴냈다.

1인칭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주인공의 입을 통해 작가의 종교관과 깨달음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작품속에 녹아들게 했다. 소설은 부처님의 나라 인도·네팔 등으로의 구도여행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얻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방종적인 것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욱이며 사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소설은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작가의 경험과 애정어린 눈으로 그려진, 제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게 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향봉스님은 시집 〈사랑하며 용서하며〉와 장편소설 〈겨울장마〉 등 12권의 시와 소설을 발표해 왔다.

禪茶一如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 다원 녹수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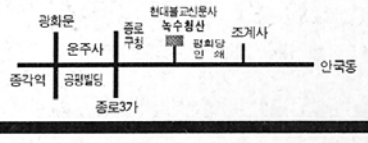
발걸음은 어느새 녹수청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차 한 잔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

따스한 차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따스함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찾은 손님을 맞이하듯
먼길 다녀온 자식을 대하듯
바로 그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오직 녹수청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따스함.
유달리 매운 바람에 옷깃을 여민 어느 날,
어느 새 발걸음은 녹수청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736-3782)

오시는 곳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옥중 安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52-0803, 藥師庵 一如
총판 : 책방 여시아문 (02) 737-069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太空月珠 編譯/크라운판 양장/
38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국내 최대규모 목탑 보탑사 이달말 완공

높이 108척…"21세기 한국문화재 탄생"

오는 2월말 완공을 앞둔 충북 진천 보탑사가 공사착공 3년여만에 마침내 그 장엄함을 드러냈다. 통일신라시대 황룡사 9층목탑의 건축양식을 이어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대탑'으로 이름지어진 보탑사는 연건평 1백52평, 상륜까지의 높이 1백8척(32.7m)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목탑으로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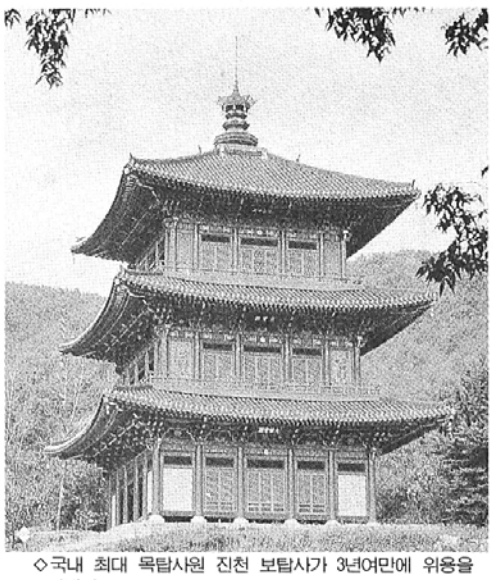
삼선포교원 주지 지광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주는 불교문화를 다시 꽃피우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21세기의 한국문화재를 만들어 보여주고 싶었다"며 보탑사 불사배경을 설명했다.

보탑사는 착공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남겼고, 그만큼 기대도 컸다. '21세기의 문화재'를 세우겠다는 발원이 있었고, 신영훈(목수한옥연구소장), 단청장 한석성옹, 대목장 조희완 등 한옥건축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최고의 장인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3년여 동안 중국과 일본 인도의 유적답사와 고증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탑과 사방불〉〈단청〉 등의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다.

터를 고르는 기초공사부터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돌과 모래를 넣고 수차례 물을 부어 모래가 돌사이에 채워지도록 하는 입사기초공법을 사용했다. 또 철제와 못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짜맞추는 결구기법으로 지어졌다. 건축·설계를 배우는 학생들의 견학장이 되기도 했다. 단청도 특이하다. 조밀함을 피해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고구려 이래의 여러 무늬들을 자유스럽게 채택, 구사한 명품'이란 평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특히 보탑사는 삼국시대 이래 맥이 끊긴 불전형 사방불신앙을 재현하고 있어 관심을 더해준다. 탑전 내부에는 1층에 비로자나불 석가여래불 아미타여래불 약사여래불을, 3층에는 미륵불을 모셨다. 2층은 법보전이다.

정성운 기자



◇국내 최대 목탑사원 진천 보탑사가 3년여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btn 안테나 재조정 서비스

무궁화위성 수신따라 3월5일까지

불교TV가 그동안 방송망 설치 조건이 어려운 산중사찰 등지에 설치 서비스해왔던 위성방송시스템이 무궁화위성의 정상수신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수신 안테나의 방위각 및 양각을 조정해야만 정상가동이 가능해 진다.

이에따라 불교TV에서는 그간 사용해 온 인텔셋의 방위각을 무궁화 위성에 맞춰주기 위한 서비스를 오는 무궁화위성의 작동개시일인 27일부터 시작, 오는 3월 5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그간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 수신불량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작업을 맡은 대륭시스템의 박광호 과장은 "이미 위성방송수신시스템을 갖춘 2백여 각 사찰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다만 설치기간이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약간의 시설비 추가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비자카드 발급 불교TV 기준 완화

불교TV가 외환비자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발급중인 btn 외환비자카드 발급 허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스님들에게도 카드가 발급된다.

스님의 경우 승랍 5년이상의 경우가 해당되며 또한 각 종단의 총무직원과 불교TV주식 1백주이상 소지자, 불교관련 언론종사자들에게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btn외환비자카드의 이용액의 0.1%는 영상포교를 위한 공익기금으로 사용되며 불교TV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영상물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모임·BBS 특별기획

법정스님과의 만남 ④끝

주제: 맑고향기로운 수행

대담: 진 명 〈스님〉



◇진명스님

"계율은 강요아닌 생활"

투철한 출가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바로 계행이고 정진

"지나친 세상 편승 수행자 답지 않아요 종교는 감화입니다"

진명=새해를 맞이 하시는 소감을 들려 주십시요

법정=달력이란 것이 열두 달이다, 1년이다 나누어 놓으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세월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사물이 육신이 변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불자라면 덧없는 세월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덧없이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설이 되면 늘 한해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보냈는가 생각합니다.

진명=수행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등을 비롯 시중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 명심해야 하는 청규는 무엇일까요.

법정=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라고 할 때 사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정진입니다. 정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일념으로 매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진인 것입니다. 또 이는 산중에서 기도정진하는 것 못지 않게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정진이지요. 그런데 자기형상만을 위해서 이웃이 어떻게 됐건 무시하고, 종교적인 기능, 사회적인 역할을 도외시하고 형식적으로 자기완성을 위해서만 노력한다고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회활동은 선방에서 기도정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런 정신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면 안팎으로 덕이 될 것입니다.

진명=요즈음은 출가자들이 계율정신에 있어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학들 수행에 거울이 될 만한 계율정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요.

법정=계율은 청정한 생활규범입니다. 요즈음 일부 수행자들을 보면 계율을 소홀히 해서 일반 신도들에게 '승속에 다를게 뭐냐'하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계율은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생활의 규범이 돼야 합니다. 투철한 출가정신을 지니고 하루하루 생활한다면 이것이 바로 계행이고 정진인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살아야 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수시로 무엇 때문에 출가하였고, 어떤 것이 출가자의 본분이고 삶의 태도인가를 생각한다면 2백50여 가지의 계목을 낱낱이 되새기지 않는다해도 생활자체가 청정한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행이 철저하려면 가난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면 계행이 해이해지기 십상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이런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풍요로운 물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맑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가난속에서 보리가 무르익어지는 것입니다.

진명=요즈음은 컴퓨터 통신을 비롯 대중매체의 발달로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는 승가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세상의 흐름에 대해 너무 어둡다면 그 세상을 읽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지나치게 편승한다는 것도 수행자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향, 취향이나 직능에 따라 컴퓨터도 익히고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준비로써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알고 교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고색창연한 수행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현대화보다도 고색창연한 수행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행자들이 현대사회에 훨씬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현대화 물결에 편승해서 마치 승도 속도 아닌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종교는 감화입니다. 인격이 풍기고 있는 수행자의 덕에 의해서 교화되는 것이지 세상일로 교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외골수로 파고드는 수행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명=향기나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한 말씀해주십시요.

법정=자기 자신답게 간절하게 생활한다면 이웃에게 향기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닮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CD로 떠나는 실크로드 나들이

불교사·사상 상세히 소개…한국어판 제작

한장의 CD롬으로 실크로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수천장의 사진과 생생한 현장음으로 떠나는 실크로드 여행은 우리말로 자세히 안내된다.

한국 후지쯔와 SKC 중앙아미시스가 국내판으로 제작 시판하고 있는 CD롬 '실크로드'는 폴란드의 한 작가가 실크로드를 직접 여행하면서 찍은 수천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 CD롬은 크게 7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다. 종교여행 민족여행 역사여행 모험여행 언어여행 돈황석굴 카라반 등으로 나눠진 큰 주제 속에 각각의 작은 타이틀에 따라 실크로드 문화의 진수를 알려 준다. 특히 종교여행 속에서는 이 지역의 불교사와 불교사상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실크로드 전역의 다양한 불교종파들도 소개되고 있어 상좌부불교에서 대승 티벳불교 선종 정토종 법화종 천태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각 주제를 여행하면서 중간중간 만나는 퀴즈와 게임들은 실크로드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어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 케이티시스템(704-5977)이 총판을 맡아 보급하고 있다. 1개당 4만9천5백원.



목탁소리

'소쩍새' 또다시 혼란 위기

도필선 〈취재1부 기자〉

작년 9월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승려 정승우(일력)가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 21부에 의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 7일 출소했다. 정씨는 출소할 당시 "명예회복을 위해 향후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조카 박도택씨를 통해 밝혔다. 이에따라 안정화 추세에 있던 소쩍새마을에 또다시 파란이 예상돼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씨측은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MBC PD수첩 보도의 부당성 고발내지 지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구성원의 조정 등을 들고 있다.

MBC PD수첩의 고발 문제는 차지해 두고라도 승가원 이사회의 구성원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정씨측의 숨은 의도에 불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이사는 원장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비롯한 9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 최금환, 법신스님 2인은 정씨측이 추천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한 정씨측의 요구사항은 법신스님을 비롯한 4인을 승가원의 이사로 영입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성원요건(이사 3/2)과 안건통과요건(이사 과반수)을 염두해 둔 것으로 승가원 운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정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중앙승가대학에 대한 기부취하소송 제기 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정씨의 숨은 의도를 더욱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소쩍새마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인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센터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승가원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명예회복이라는 미명으로 소쩍새마을을 혼란속으로 빠뜨리려는 정씨의 망발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며, 불자들을 경악스럽게 한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제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제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발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발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액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액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864-3740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34-9490, 39-1906
- 야간 : (0342)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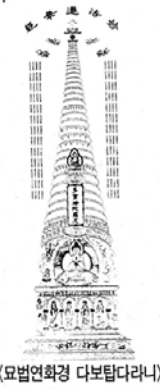
"어려운 역경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만 알려드리는 획기적인 정보!"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祕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백색공단천위에 100% 순수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크기) : (가로)62cm×(세로)160cm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 5층)
전화 : (051)864-3740

책자신청 : ①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전화 : (0335)34-9490,39-1906,야간(0342)706-3060

◎자체에서 실제로 強力(강력)한 氣(기)가 방출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만 보내드려 큰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方法은 신도개개인의 현재의 運을 그자리에서 직접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運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며, 나쁜운이 좋아지게 변화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으며, 영가의 빙의 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운명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며, 전혀 운명을 판단해 줄 수 없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되어, 이번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독도망언 이번엔 뿌리뽑자"

"독도는 우리땅"… 30년간 독도연구 불자 이종학 씨

일본 옛지도 '조선해 표기' 잘 나타나
논문등 3백점 모아 독도자료관 기증

"옛날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동해가 조선해(朝鮮海)로 표기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조선해로 분명하게 표기된 것이 많다는게 중요하겠지요."

30년간 독도관련 자료 3백여점을 모으며 독도를 연구해 온 이종학(70세)씨는 왜 지금 다시 독도 영유권이 국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0여년간 일본을 50여 차례나 다녀왔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인 스스로의 역사에서 독도는 우리땅임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이씨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산 옛날지도 외에도 다양한 논문과 문서들을 입수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독도가 본래 자기네 땅이란 주장과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을 국제법상의 요식행을 거쳐서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했다'는 근거는 스스로의 모순에 싸여있는 것 아닙니까."

이씨는 울릉군이 내놓은 1만여평의 땅(울릉읍 도동)에 삼성문화재단이 건립, 올 12월에 개관할 독도자료관에 현재까지 수집한 독도관련 자료를 기증할 계획이다. 기증할 3백여점의 자료에는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 독도가 우리땅임을 밝힌 논문과 기사, 잡지는 물론 일본인들이 일본땅임을 내세운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경기도 화성군 죽암 출신이라는 이씨는 일본해로 표기하는가 하면 장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독도는 우리땅임을 확고히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일본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맞서기만하는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무기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씨는 최근 새삼스레 불거져 나온 독도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따갑게 지적했다.

"이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일본은 그간 꾸준히 독도에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대외적으로도 은근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근대 이후 제작되는 지도에 동해를 표기하는 것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30년간 독도관련 자료 3백여점을 모은 불자 이종학씨가 옛날 지도를 펴보이며 "독도는 우리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탑공원 낙성·영탑 제막식 성황

진주 한마음선원, 14기 조성…1천여명 참석

진주시 미천면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지원장 혜근스님) 안에 탑공원이 준공, 낙성법회와 함께 영탑 제막식이 성대하게 봉행됐다.

지난 11일 오전11시 탑공원 현지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을 비롯한 스님들과 현지 기관장 및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탑공원 준공 및 영탑 제막 법요식에 이어 탑돌이를 갖고 오후 2시부터는 신도 수계식이 이어졌다.

진주 탑공원은 대지 2천여평 부지에 1차 14기의 영탑이 조성됐고 앞으로 계속 건립할 계획이다.

방송운영자금 지원

부산 관음선행장학회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회장 정금강행)는 지난 12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제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진법스님(통도사 승가대), 이재한(서울대 물리학과 3년)군 등 승·속의 청년불자 13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1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관음선행장학회는 또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과 불교TV 부산지사(지사장 우관수)에 각각 2천만원의 운영자금을, 대불청 부산지구(회장 이상대)에는 1천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봉사·후원자 모집
개금사회복지관

영세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재가복지센터가 개설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개금사회복지관은 현재 관내에 독거노인 30여명, 생활보호대상자 5백세대, 소년소녀가장 12세대, 모자가정 5세대, 장애인 2백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이들을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제 3층석탑 점안

종립 홍제중학교

종립 홍제중학교(교장 김원식)는 지난 15일 교내에서 홍제 3층석탑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홍제중학교 김원식교장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홍제 3층석탑을 교내에 세워 정법을 전하는 포교도량으로 일신케 됐다"고 밝혔다.

27일 지장보살 점안·선방 기공

교계 첫 실버타운 '가평 성라노인마을'

교계 최초 실버타운인 가평 성라노인마을이 개원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전 11시 지장보살 점안식 및 탑 제막을 거행한다. 또 실버타운 맞은편에 70평 규모의 3천불 법당과 1백20평의 선방, 1백70평 규모의 요사채 기공식도 함께 봉행한다.

성라노인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이 실버타운은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이사장 법성스님)이 작년 5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만여평의 대지에 건설되고 있다.

지장보살 점안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성라노인마을은 총 70여억원의 예산으로 △유료양로원 △노인회관 △노인대학 △노인선원 △병원 △혜저시설 △식당 등을 건립한다.

신입생도 환영법회

제3사관학교 호국사

경북 영천 제3사관학교 충성호국사(주지 최수도)는 지난 11일 생도 33기 가입교를 맞아 장교와 생도불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관생도 환영 초청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명정스님(통도사 극락암)은 법문을 통해 "대원력을 가지고 불교와 국가를 위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혜해스님(팔공산 거조암)을 비롯 영천사암연합회 22명의 스님은 불교서적을 비롯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기현회장체제 유지

전국신도회 대의원총회

전국신도회는 지난 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기현회장의 임기를 임기만료일인 4월 17일까지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전신회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기현회장 체제로 조직활성화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전국신도회는 △4월 17일 대의원총회에서 새집행부 구성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에 참여한 회원들의 제적 △전신회 활성화대책위원회에 의결 및 집행권을 위임키로 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조기현회장을 비롯 김양수 정회택충북지부장 곽태정대전지부장 이민용안양지회장 임선교성남지회장 배조웅서울대의원 이건호서울대의원이 선임됐다. 대책위는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한편 전불련 대불청 대불련총동문회 등은 14일 일제히 성명을 내어 "조기현씨가 과거의 매불행위를 참회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산 교직자불자회 23일 창립
지역청소년 불심함양 앞장

군산지역교직자불자회는 오는 2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청소년들의 불심함양을 위해 출범하는 교직자불자회는 지난달 15일 화엄불교대학에서 제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회칙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포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논의했다.

교직자불자회 창립준비작업을 해온 김종하교사(금산상고)는 "군산 지역에 교사불자들의 수는 약 2여백여명에 달한다"며 "일선교사들이 학원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군산 지역 청소년 포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포교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란이총 환국 재검토"
3군 군승단 문제제기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이 최근 일본 이총보존회(회장 후지이 데쓰오시)와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는 임란이총(耳塚) 환국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지난 12일 조계종 총무부와 포교원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승단은 "일본의 이총환국 추진은 자신의 침략사에 대한 죄과를 오도하고 은폐하여 세계평화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사전포석적인 고도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침략상과 죄악상을 역사적으로 영원히 증거할 수 있는 이총을 우리나라로 봉환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에게 침략에 대한 국제사회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설명하고, 종단에서는 '이총환국'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의 행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사찰환경운동으로 지역공동체 이룩"

불교환경교육원 그린플랜21 발표… 조계종 환경위 추진

사찰환경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내는 환경운동이 펼쳐진다. 불교환경교육원이 최근 이같은 사업을 조계종 총무원에 제안하면서 조계종이 금년내로 환경위원회를 발족키로 하는 등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육원 제안서에 따르면 △불자환경수행 지침서 발간 △'불교그린플랜 21' 발표 및 환경실천위 발대식 △지역사찰 주지스님 환경교육 △불자환경수행청규 및 스티커제작 배포 △환경 워크샵 및 수련회 △본사급 시범사찰 지정운영 △각 참가단체들간의 연대방향모색 △토론회 개최 등이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1차적으로 6월1일 불자환경지침서를 발간한뒤 2개월간에 걸쳐 각본사 및 주지스님 1천5백96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는 환경청규를 담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국단위사찰과 신도조직을 통해 배포한다는 것. 또 '환경플랜 21' 계획발표와 환경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거행하며 지난해부터 지역환경위원회를 발족한 직지사를 시범사찰로 운영함으로써 가치관과 생활양식변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의 노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5개년 환경플랜인 △실천주체결성 △실천주체훈련 △실천주체실천방향 △실천주체 시범사찰운영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인도 대한사 봉불

부처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의 한국사찰 대한사(주지 성관)는 지난 19일 2천여평의 대지에 기공식 및 봉불식을 가졌다. 범룡스님(봉암사 조실) 혜창스님(조계종 호법부장)을 비롯 현지 기관장 물자 주민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여야 정책위의장 초청간담회

조계종 종회, 내달 7~9일 통도사 연수회

4·11총선을 앞두고 김종호(신한국당) 손세일(국민회의) 서경석(민주당) 박구일(자민련) 등 4당의 정책위의장이 조계종 종회의원스님들에게 각당의 종교정책을 소개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열리는 종회의원 연수회에 4당 정책위의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각당의 종교관련 기본정책을 알아본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책위의장들에게 전사법, 종토세, 국립공원관리법등 대정부관련 불교계 현안문제를 설명, 각당의 정책결정에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이다.

종회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월하 종정스님을 비롯 월주 원산 성타스님 등 3원장과 종회의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다.

박선영씨 "신장받아 새로 태어나고파요"

만성신부전증 앓고 있는 박선영씨

박선영(35, 부산 사상구 학장동, 법명 宣香)씨에게는 한달음에 올라가야 할 2층 높이의 계단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져 숨이 턱에까지 찬다. 부산불교교육원에서 매일 하는 108배 참회기도도 이제 갈수록 힘에 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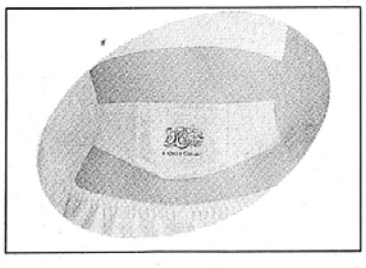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장이식외에 더이상 뾰족한 치료책이 없다. 선영씨가 신장의 이상을 느낀 것은 지난 85년, 누나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되지 않았던 때라 삶에 대한 열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선암사 청년회장직을 맡아 불교활동도 열심히 하던 때였다.

현재 방광의 기능이 완전 상실돼 소변을 거의 볼 수 없는 박씨는 하루 5회 페리토쥴(노폐물을 걸러내는 약물) 투석과 주 1~2회의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정수기 영업사원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는 것도 죄스러워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라며 말꼬리를 흐리는 선영씨는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하모니카가 아닌 섹스폰으로 찬불가를 멋드러지게 불러보고 싶단다.(혈액형 B형) (051-327-6067)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당뇨

병이 아니다

淸糖元

(청) (당) (원)

(보건복지부허가 제131-35호)

- FDA(미국식품의약국) 승인식품 (NETIX 60400)
- 일본 특허획득(No 5-278867)
- 일본 (주)우웰사 수출
- 한국특허출원(No 14055호) (혈당강하조성물 : 물질특허)

*공휴일도 접수 직접배달

전국문의
(주)세원 代 02) 516-5752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5-3 3층

당뇨

혈당측정기
10만원대 존슨&존슨



혈당관리는 합병증 예방

당뇨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여 정상적인 수치로 조절하는 철저한 자기관리만이 건강한 생활과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종합병원
서울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 삼성병원계열, 국립의료원, 고대병원병원계열, 중앙병원, 삼바오로병원등 60여병원

▶ 주·야 공휴일도 접수
특별공급가 ₩165,000 ■대리점 모집중

전국 어디나 직접 배달합니다.
代 02) 516-6804

건강백세 ④

눈의 질환

지금은 보기 드물지만 전에 많이 유행했던 트라코마나, 흔히 다래끼 또는 맥립종(麥立腫)으로 알고 있는 안검연염(安瞼緣炎) 등도 속눈섭의 모근이나 피지선에 세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접촉성 또는 외감성으로 위생에 유의하면 감소될수 있다.

결막염(結膜炎)은 흔히 '삼눈'이라 부르는 것으로 역시 세균 감염에서 오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상처가 생긴 후 감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엷은 엽각막(角膜=검은자위)에 생기는 것이 있다.

결막에 생기는 것이 좀 가벼운 편이고 결막과 각막의 경계 선부분에 제일 많이 생기는데 단백식품의 과잉섭취와 신경과다소모에서 호발(好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이(食餌)에 유의하고 체력을 튼튼하게 도와주면 약간 호전되나 근치가 어렵고 재발도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충풍루출(衝風淚出=바람을 쐬이면 눈물이 자꾸 나오는 증상) 등의 증상도 눈에 자극, 접촉을 피하고 안정을 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속히 받아야 한다. 황련(黃連) 달인 물을 약한 농도로 위생적으로 만들어 점안하거나 볶은 소금을 증류수에 약하게 녹여서 세안하는 것도 의외의 효력을 볼 수 있다.

충혈이나 가려움증이 오면 증상을 잘 감별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눈이 맑아 진다는 세안제나 콜티손이 함유된 안약을 써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실기(失期)하거나 안압(眼壓)이 높아진줄 모르고 방치하여 시력까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결막염에 엽차·질경이 삶은 물 효과
충혈등 치료시기 놓치면 시력나빠져

저 너머에 행복이 ④〈끝〉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가정과 법당에 충실한 불자가 되니 가피를 많이 느끼게 되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하는 돈암포교원 레크리에이션 강습을 매주 나갔다. 그리고 찬불가를 배우려고 불교연구원도 열심히 뛰어 다녔다.

TV 어린이 프로에 나오는 색종이접기와 게임도 눈여겨 보았고, 불교방송국 어린이 동화시간에 나오는 옛날이야기도 귀담아 들었다. 〈백유경〉을 여러번 읽고 메모해 두었다가 언제라도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해 두었다.

주지스님 설법시간에 특별한 이야기꺼리가 있으면 줄거리를 정리해서 법회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기고 했다. 내가 배우려고 노력 할수록 어느새 유능해지고 있었다. 동요를 잘 부르기 위해 노래방에 가끔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불가 테잎을 구해서 집에서 율동과 함께 노래 연습을 한 후 수업에 임하기도 했다. 일주일에 단 2시간 수업을 위해 나의 머리속은 1주일 내내 복잡해져 있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불법을 포교하고 법당과 친숙하게 만들려는 작업은 더욱 힘든 수업이었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 첫 여름불교학교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1박2일의 교사연수를 다녀와야 했고 아이들과 2박3일의 캠프도 다녀와야만 했다. 단 한번도 남편없이 외박을 한적이 없는 나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혼자 걱정을 하다가 스님께 말씀드렸다. 도저히 법회활동을 계속 못할 것 같다며 캠프를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때 빠지는 것이 죄송하기까지 했다. 나 자신도 걸림이 많았다. 워낙 성격이 깐깐하다 보니 빨래감 밀리는 것도 걱정되고 여러날 집을 비우면 식구들 식사문제도 걱정이 되었다. 토요법회를 하려고 금요일부터 반찬준비를 해서 일요일까지 빈틈없이 준비하는 나로서는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고생시킬 수가 없었다.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다 잘 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집에 돌아와서 교사연수와 불교학교캠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허락을 기다렸다.

뜻밖에도 남편은 순순히 응낙을 해주었다. "계속 법회에 다니려면 배워야 써 먹는 것 아니냐"면서 "잘 다녀오라"고 말해 주었다. 아이들도 집안 일 걱정말고 열심히 배워 오라면서 젊은 선생님들에게 뒤쳐지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주었다.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식구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 덕분에 18년만에 첫 외박을 하게 되었다. 부처님 법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실한 재자되기를 서원하며 가정과 법당에 충실한 불자가 되고보니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게 되었다.

남편의 진급과 아파트당첨 그리고 행복한 우리가정 만들기 모든 것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처님 품안에 있었기 때문일게다.

토요일 마다 만나는 어린이 부처님들을 바라보며 해맑은 그들의 웃음을 닮아가고 있다. 나날이 행복해지는 내 마음을 부처님은 아시겠지…

7년간의 과외교사 자리는 그만 내 놓았다. 이젠 그만 돈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나중에 정말 또 다시 돈욕심이 생기면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법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법회교사 자리를 인연 지어주신 현능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연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동참할 것이다.

가진 것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이 신심 하나만으로 중년의 나이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함이 아닐까?

어린이들을 만나서 반갑고 부처님 하시는 앞에 동참할 수 있으니 즐겁고 나 자신 점점 젊어지고 있으니 더욱 행복하다.

항상 나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남편과 아무 탈없이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보낸다. 언제나 우리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이 희명화 〈서울 노원구 상계 8동〉



♦ Bhagavat said : 'He who has overcome doubt, is without pain, delights in Nibbana, is free from greed, a leader of the world of men and gods, such a one the Buddhas call a maggagina (that is, victorious by the way).' (85)

스승이 대답하셨다. "의혹을 극복한 사람은 고뇌를 떠나 열반을 즐긴다. 또한 탐욕을 버리고 신(神)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은 말한다."

♦ 'He who in this world having known the best (i.e.Nibbana) as the best, expounds and explains here the Dhamma, him, the doubt-cutting Muni, without desire, the second Bhikkhu they call a maggadesin (that is, teaching the way).' (86)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을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해석하는 사람, 의혹을 버린 성인은 욕망이 없어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인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㉟

♦ 'He who lives in the way that has so well been taught in the Dhammapada, and is restrained, attentive, cultivating blameless words, him, the third Bhikkhu they call a maggagivin (that is, living in the way).' (87)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스스로 억제하고 깊이 생각해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expound (경전을) 해석하다.
*magga 도(道)
*Dhammapada 법구. 진리를 담은 한 구절 (빠알리어)
*attentive 주의 깊은
*cultivate (cultivating) 양성하다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고행자 ㉟

타고르 作

제1장

(고행자는 토굴 밖에 앉아 있다)

"나에게는 밤낮의 구별도 없거니와 세월의 구별 또한 없구나. 나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은 멈추었고 이 세상의 물결 위에서 검붉이나 잔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을 뿐. 이 어두운 토굴 속에 나는 다만 홀로 자아에 몰입하고 있다니-그리고 영원한 밤은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 스스로 두려워하는 산정호수와도 같이 고요하구나. 금이 간 바위틈 사이로 물방울이 스며나와 떨어지고 물구덩에는 개구리가 떠 있다. 나는 없음(無)에 이르는 주문을 외우며 앉아 있다."

제2장

(고행자는 길가에 앉아 있다)

"이 세상은 변함없는 지광(地平)에 보호받거나 혹은 감시받는 형편없으니 협소하고 답답한 것일까! 나무들도 집들도 또 다른 모든 것들도 내 두눈을 짓누르고 있구나. 빛은 새장처럼 어두운 영원을 차단하고 있고 또한 시간은 새장속의 새처럼 그 장 속에서 날으며 울부짖고 있구나. 그런데 이 시끄러운 인파는 무엇때문에 어찌 급한 걸음으로 가고 있을까. 언제나 그들은 무엇인가를 잃을까 겁내고 있는 듯하구나. 그것은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림 · 심만섭

여인A 아니 이럴수가! 점말 날 웃기는군.

여인B 그렇지만 누가 당신이 늙었다고 말했죠?

노 장 아무튼 사람들의 외형만 보고 이러쿵 저러쿵 비평하는 바보도 있군.

"부분과 전체는 하나의 순환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

여인A 오 슬픈일이군요. 우린 어렸을 때부터 노장님의 모습을 보아왔지요. 그러나 그 여러해가 지났어도 그대로 똑같으시니 말예요.

노 장 마치 아침 해처럼.

여인A 그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해처럼 말이예요.

(그들은 가고 두 학생이 들어온다)

학생A 논쟁에서는 아라브교수가 이겼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학생B 아니지. 이긴 것은 자나르단 교수야.

학생A 마다브교수는 끝까지 자신의 요점을 주장했지. 교수님은 부분은 전체의 결과라고 했어.

학생B 그렇지만 자나르단교수는 부분은 전체의 기원임을 마지막까지 증명했지 않나.

학생A 불가능한 일이야.

학생B 이는 대낮의 밝음처럼 분명한 거야.

학생A 씨앗들은 나무에서 생기는 것이지.

학생B 아니, 나무는 씨앗에서 생겨나는 것이야.

학생A 고행자시여,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어느 쪽이 부분과 전체의 기원입니까?

고행자 기원은 종말이며 종말은 기원이다. 이는 하나의 순환인 것. 부분과 전체를 구별하는 것은 너희들의 무지의 소치인 것이다.

〈계속〉

작가소개

인도의 시인 소설가 사상가이자 교육자다. 1861년 캘커타에서 출생. 1913년 작품집 〈키탄잘리〉로 노벨문학상 받음. 20년 동아일보창간때 시 「동방의 등불」기고.

생활 속의 불교 ㊷

통증을 못 느끼는 이상체질이 안 되려면…



아주 드물게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의학적 용어로는 통각 불감증이라 한다. 이 사람은 몸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심지어는 뼈가 부러져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도 죽는 순간까지 신음하는 일이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 좋은 체질 같지만 실은 통증을 모르기에 대부분 어려서 죽고 만다. 통증이 없으니 병든 줄 모르고 병인 줄 모르니 치료의 기회를 놓쳐 끝내는 일찍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몸이 아픈 걸 느낀다는 것은 살아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병고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가령 몸의 어떤 부위가 욱욱 쑤신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이상(異狀)을 알리는 경고인데 그런 경고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치료에 착수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듯 몸의 통증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케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도 몸의 통증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비뚤어진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경고인 것이다. 모난 돌을 다듬는 데 정(釘)을 쓰듯이 마음을 둥글게 다스리는 데는 고통이 약이 된다.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것 싫은 것, 갖가지 희노애락은 자기가 살아 오면서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결과이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거두는 인과의 철칙에 따라 내가 뿌린 것이 마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다가 풀어내듯이 그렇게 솔솔 풀려서 내 앞을 막아 서는 것이다. 그것이 즐거움으로 올 때는 반갑고 좋지만 고통으로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다가선 고통의 체험 속에서 이미 입력된 고의 업보를 녹이고, 더 이상 고의 씨앗을 뿌리지 않음으로써 삶을 건강하게 끌고 가는 치료의 처방은 있다. 고통에는 바로 그 점을 알려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고(苦)란 다름 아닌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기회의 제공이요, 사랑의 채찍인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경고의 말씀이요, 마음공부의 훌륭한 재료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이 고해(苦海)가 된 까닭은 이기심·탐욕·어리석음·갈애(渴愛)·성냄 때문이라고 하셨다. 진작에 뿌린 탐욕의 씨앗이 고통의 열매를 낳고, 갈애의 씨앗, 이기심의 씨앗이 또 고통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현실의 고통에 대한 거부·저항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과의 참뜻을 배우고 참회하는 수용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보고 듣고 겪는 일체의 경계는 즐거운 것이든 고통스런 것이든 알고 보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요 경전이다. 나를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자비의 과정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고자 한다면 필경은 쓴 맛의 참뜻을 알게 될 때까지 고통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찾아올 것이다.

통각 불감증 환자처럼 살지 말고 고통의 메시지를 바로 읽고 바로 보자. 고는 본래부터 밝아 있음을 모르는 나를 일깨우기 위한 각성제이다. 고는 해탈 열반의 세계로 가는 통행증이다.

협찬 : 주 인 공